

창조하라, 세종처럼
Creative Leadership

함께 이루는

목차

대상

4 행정학과 서지은

나는 이렇게 세종대에 합격했다!

최우수상

10 에너지자원공학과 장희경

나는 이렇게 세종대에 합격했다!

14 경영학부 임성아

여러분만의 꿈을 따라가 보세요

18 국제학부 김민송

나는 이렇게 세종대에 합격했다!

24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김영호

나는 이렇게 세종대에 합격했다!

28 만화애니메이션학과 이효정

오늘을 위해서 충실히 산다면 세마리 토끼가 따라온다.

32 물리천문학과 박수빈

나는 이렇게 세종대에 합격했다!

35 패션디자인학과 김지오

나는 이렇게 세종대에 합격했다!

39 전자정보통신공학과 김범중

나는 이렇게 세종대에 합격했다!

44 호텔관광외식경영부 레영지

채워나가자, 내 눈 앞에 캔버스

47 2019학년도 입학전형 소개

수시모집 [논술] 논술우수자 전형

정시모집 [수능] 일반학생 전형

수시모집 [학생부 종합] 창의인재 전형

수시모집 [학생부 교과] 학생부우수자 전형

정시모집 [수능] 일반학생 전형

수시모집 [학생부 종합] 창의인재 전형

수시모집 [학생부 종합] 창의인재 전형

정시모집 [수능] 일반학생 전형

정시모집 [수능] 일반학생 전형

수시모집 [재외국민] 재외국민과외국인 전형

창조하라, 세종처럼
2018 신입생 입학수기 공모전

대상

대상 나는 이렇게 세종대에 합격했다!

행정학과 서 지 은

수시모집 [논술]
논술우수자 전형

세종대와 행정학과를 선택하게 된 이유

사실 나의 꿈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교육행정 공무원이 되는 것과 사회 선생님이 되는 것 둘다 하고 싶지만 직접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 나에게 어떤 것이 더 적합한지 모른다. 이런 내가 세종대학교에 들어가고 싶었던 이유는 두 가지가 있다.

우선 꿈이 공무원이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취업 준비를 하다가 할게 없어서 공무원을 준비한다. 즉 처음부터 꿈이 공무원이 아닌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다. 또 어차피 공무원을 할 거면 대학교 진학보다는 노량진 학원을 가는 것이 훨씬 더 빠른 길일 수 있다. 그러나 나는 우리나라의 교육 제도를 지난 3년간 경험해보았고 그에 대하여 많은 문제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교육 행정 공무원이라는 일을 하면서 기계적인 습득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배울 수 있고 생각할 수 있는 교육의 장을 마련하는 것이 목표이자 꿈이다. 이러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나부터 책상에서 시험 공부를 하면서 책 속에서만 세상을 찾는 것이 아니라 직접 경험하면서 배우고, 다양한 활동들을 하면서 어떤 것에 대하여 깊게 생각하고 사고의 폭을 넓히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이러한 생각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미리 짜여진 시간표에 수동적으로 움직이는 노량진 학원보다는 나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대학교에 진학하여 다양한 경험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또한 앞서 말했듯이 선생님이 되어 보고 싶기도 하다. 그러나 아직 어떤 것이 더 잘 맞을 지 몰라 대학에 지원할 때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다. 그래서 자율전공 학부에 지원을 해 볼까 하는 생각도 있었으나 내가 지원한 학교에서는

자율전공 학부 출신의 학생은 교육 학과에서 편입을 할 수 없도록 제도적으로 막아 놓았거나 행정학과와 교육학과를 개설하지 않은 곳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행정학과 교육학을 함께 공부 할 수 있는 학교는 많지 않았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지금 세종대학교 행정학과에 입학하게 되었다. 그 이유는 세종대학교에는 교직이수제도가 잘 마련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었다. 이 제도를 통해 1년동안 행정학에 대하여 조금이라도 실제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됨과 동시에 2학년때부터 교직을 이수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열어 둘 수 있었다. 한번에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행운이 생긴 것 이었다. 이러한 이유로 세종대학교에 지원 할 수 밖에 없었고 이후에 합격한 다른 학교와 비교 했을 때 나의 상황에 맞게 가능성을 열어둔 세종대학교를 선택 할 수 밖에 없었다.

수험 전략

나는 논술 전형으로 세종대학교에 입학하게 되었다. 수업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데 익숙한 나는 비판적 사고력이나 논리력 혹은 남을 감동시킬 만큼 글을 잘 쓰는 재주 같은 것은 없었다. 그렇다고 어릴 때 부터 책을 많이 읽은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논술에 대한 두려움이 많았다. 우선 문장을 어떻게 마무리 지어야 중복되지 않게 쓸 수 있는지, 자연스럽게 글이 흘러가려면 글의 구성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 그리고 무엇보다도 글을 써야 한다는 압박감에 무작정 글을 쓰다 보면 한참 뒤에서야 답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기 때문에 글을 처음부터 다시 써야 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 결과 답부터 틀리는 경우가 많았다. 그리고 앞서 말한 것들을 모두 고민하면서 글을 쓰다 보니 한 문제를 푸는 데 보통 4시간 정도 걸렸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개요를 통해 하나씩 해결되었다. 글을 쓰기 전에 개요를 짜면서 자연스럽게 글의 구성에 대하여 생각해 보게 되기 때문에 글의 흐름이 자연스러워졌고, 다 쓴 다음에 답이 아닌 것 같아서 다시 처음부터는 써야하는 일이 없어졌다. 그리고 그 결과 시간도 단축 할 수 있게 되어서 실제 시험장에서는 시간을 남기면서도 답을 써 낼 수 있었다. 또한 논술을 시작한 지 1년이 넘어가던 시점이 되어서야 어느 정도 답을 맞출 수 있었는데 이는 생각하는 과정이 축적되어 생각의 깊이가 생긴 것이 아닌가 싶다. 또한 첨삭을 하다 보면 열심히 쓴 글이 부정당하는 경험을 주로 하기 때문에 겉으로는 수긍하더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내 답의 합리성을 증명해내려고 노력한다. 물론 생각없이 무조건 답을 수용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합리적으로 생각했을 때 대학 측의 답안이 맞다면 모범답안을 받아들이는 열린 자세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공부 비결

결론적으로 논술은 글 전체를 볼 줄 알아야 하며, 많이 생각하는 시간과 그러한 시간적 경험의 누적이 필요하다. 또한 자신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비판을 받아들이며 이를 고치려는 열린 자세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것들이 내 안에 축적되다 그 실패와 경험들이 어쩔 수 없이 실력으로 바뀌어 있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을 것이다.

나는 고등학교1학년 2학기 기말고사에서 내신 수학 전교 꼴등에서 두번째 등수를 받았다. 물론 그 전에도 수학을 잘하지 못했다. 항상 열등반에 있었고 나의 수학에 대한 열등감도 가득 찼었던 시기였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나는 1학년 때 수학공부에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했다. 이러한 뼈 아픈 경험을 겪고 나서 깨달은 바가 있다. ‘공부는 속도보다는 방향이다’. 무엇이든지 마냥 열심히만 한다고 되는 것은 없다. 그 방법이 맞아야 한다. 그때부터 보기 시작한 것이 교재의 목차이다. 흔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목차를 통해 1년동안 자신이 공부해야 할 교재의 흐름을 아는 것이다. 이를 앞으로 인해 이 과목을 통해 궁극적으로 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러려면 어떤 것들을 선행적으로 배워야 하는지를 알 수 있다. 이러한 생각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각 단원의 학습 목표를 찾아보게 되고 또 그에 따라 공부하면 효율적으로 진도를 나가면서 확실하게 모르는 것 없이 그 단원을 배울 수 있다.

물론 목차를 보는 것은 많은 도움이 되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내가 수학 성적을 올리고 경시대회에서 상까지 받게 된 것은 누적 복습을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이 또한 흔한 얘기이지만, 하루하루 배운 내용을 처음부터 계속해서 복습하게 되면 시간이 지나고 나서 처음에 배운 내용을 까먹지 않게 되고 시험기간이 되면 앞 단원은 따로 공부를 하지 않더라도 이미 시험공부를 마친 수준이 되어 있다. 또한 앞부분부터 누적해서 복습하지 않으면 앞에서 당연하다고 여겼던 내용이 오히려 생소해 저서 뒤 단원의 문제를 풀 때 앞부분에 나왔던 이론을 생각해내지 못해서 어렵다고 느껴지는 문제가 없어진다. 그래서 시간적으로 시험기간이 닥쳐와서 갑자기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평소부터 조금씩 시간을 투자 하면서 공부 시간은 줄이고 그 효율은 높일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누적 복습의 장점은 수학뿐만 아니라 모든 과목에 적용할 수 있다. 나 또한 이 방법을 통해 많은 과목에서 성적을 향상시킬 수 있었다.

그 외에도 깨달은 바가 있다면 무조건 공부를 오래한다고 해서 효율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나도 이 사실을 몰랐을 때는 열심히 공부하는 것의 기준을 쉬는 시간까지 쉬지 않고 공부하는 것이라고 여겼으나, 이는 오히려 지루함을 유발한다. 또한 공부를 하다가도 졸릴 때는 잤다. 그리고 잠드는 시간 이 1시를 넘기면 안된다. 그 시간을 넘기게 되면 그 다음날 수면 부족으로 졸려서 집중을 못하게 된다. 그러면 아침에 거의 졸면서 집중을 못하고 보내게 되는데 이는 어제 몇 시간 밤에 더 했다고 해도 손해이다.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휴식과 충분한 수면 그리고 공부를 해야겠다는 의지와 올바른 공부 방법이 조화를 이룰 때 성적 향상이라는 결과가 나오는 것 같다.

창조하라, 세종처럼
2018 신입생 입학수기 공모전

최우수상

최우수상

나는 이렇게 세종대에 합격했다!

에너지자원공학과 장 희 경

정시모집 [수능]
일반학생 전형

안녕하세요.

세종대학교 공과대학 에너지자원공학과에 입학한 18학번 장희경입니다.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전환점이 있다면 작년 5월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학창시절 제일 자신있는 과목이 수학이었기 때문에 항상 수학과 관련된 미래를 꿈꿔왔었습니다. 재수생활을 마치고 물흐르듯 당연히 수학과에 진학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수학과에 진학하여 공부를 하다보니 ‘내가 이 공부를 하면서 행복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동안 제가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닌 ‘내가 잘하는 것’에만 치중을 두고 살아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결국 작년 5월, 과감히 자퇴를 하고 삼수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큰 결심을 한 만큼 아무 목표없이 삼수를 시작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평소에 관심있는 분야가 어딘지부터 고민해 보았습니다. 그러던 중 최근에 잦게 발생하고 있는 지진과 같은 지질분야에 평소 관심이 많다는 것을 느꼈고 자원지질학, 지질재해론, 지질공학 등 지질에 관련하여 심도 있게 공부해 보고 싶다는 생각을 줄곧 했었다는 것이 떠올랐습니다. 관련학과를 찾던 중 세종대학교의 에너지자원공학과가 제가 하고 싶어하는 분야와 가장 일치한다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렇게 세종대학교의 에너지자원공학과를 목표로 삼수를 시작하였고 현재 목표를 이루어 매우 만족스러운 대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긴 수험생활의 끝에 이룬 성공이라 합격의 기쁨은 감회가 남달랐고 현재 누가 시켜서가 아닌 제가 하고 싶었던 공부를 하게 되어서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나만의 공부법을 찾는 방법

남들보다 오래 수험생활을 겪었기 때문에 저의 공부방법은 수도 없이 변화해 나갔습니다. 먼저 고등학교시절을 떠올려 보면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내신이었습니다. 물론 학술 동아리, 학술대회, 튜터링 활동 등 많은 학교 행사에 참여했지만 가장 뿌리가 되는 내신을 소홀히 하지 않으려 했기 때문에 아무리 바쁜 일 있고 밥을 못먹는 한이 있더라도 매일 독서실에 가려고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고3이 되어 내신을 걱정하는 친구들 사이에서 떼땃할 수 있었습니다. 뻔한 말일수 있지만 항상 공부의 기본은 연습과 복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말이 있듯이 연습한 한 만큼 수업이 잘 귀에 들어왔고 복습을 했을 때에 비로소 수업에서 배웠던 지식이 제 것이 되었습니다. 처음 고3에 올라왔을 때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의 공부방식을 다 따라하고 싶어 그 친구들이 푸는 문제집을 사고 그 친구들이 듣는 인터넷 강의를 따라 들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돼서야 남들이 다 한다고 해서 꼭 ‘나’에게 맞는 공부 방법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고쳐먹고 나의 가장 큰 문제점부터 바꿔보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제일 먼저 한 것은 과목 간의 밸런스에 맞게 공부시간을 정하는 것이었습니다. 과목 별 공부시간을 따로 정해놓고 공부하지 않으니 내가 편애하는 과목만 공부하게 되어 그 이외의 과목은 이주에 한번꼴로 공부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간표를 보고 하루에 공부량을 정하고 과목 별로 시간을 분배하여 되도록 전과목을 매일 공부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결과 소외되는 과목없이 공부할 수 있게 되어 몇 개의 과목에서 시험 직전에 몰아서 공부하는 습관을 고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또한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 많은 고민을 했었습니다.

처음에 수험생용 스톱워치 두 개를 사서 제가 공부하는 시간과 공부하지 않는 시간을 따로 켜했습니다. 재보니 생각보다 화장실가는 것이나, 친구들과 대화하는 것이 제 시간을 많이 잡아먹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 하루에 목마름을 해소할 만큼의 물의 양만 마시도록 하여 화장실가는 횟수를 줄였고 양치하러가는 시간이나 급식실에 가는 시간에 손에 공부할 것을 들고 가면서 공부시간을 늘렸습니다.

또한 책상 위에 ‘공부하지 않을 때 하는 공부가 보약이다’는 문구를 적어 놔 항상 되새기며 공부하기 싫을 때마다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주변 친구들은 이렇게 까지 해야 되겠냐는 말을 하곤 했지만 모두에게 똑같은 시간이 주어지는 데 이를 어떻게 사용하는지가 시험점수의 차이를 낳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계획한 대로 공부를 해나갔습니다.

물론 공부하는 절대적인 시간도 중요하지만 그 시간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공부하는가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친구들을 보면 밤에 핸드폰하느냐, 친구와 수다떠느냐, 게임을 하느냐, 밤새 공부하느냐 등의 핑계를 대며 학교에 와서 수업시간에 조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공부 효율을 매우 떨어뜨리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항상 수면시간을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6시간 정도를 유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랬을 때 깨어있는 시간을 보다 맑은 정신으로 공부를 하게 되어 공부효율을 높였다고 생각합니다. 하루에 3,4시간 자는 친구들을 보며 나도 저렇게 해야하는 건가라고 고민한 적도 있었지만 수능은 장기간의 공부 계획을 가지고 해야하는 레이스와 같기 때문에 제 공부패턴대로 공부하려 노력했고 이것이 수험생활에 있어 잘한 일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집 가훈은 ‘사랑하라’입니다. 물론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고 배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적이 떨어졌다고, 공부하다가 졸았다고, 시험 때 실수했다고 자신을 채찍질하는 것도 어느 정도는 필요하지만 먼저는 스스로 상처받는 마음을 위로하고 달래기 위해 잠깐 휴식을 취하든지 취미생활을 하는 것들이 공부를 하면서 꼭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목표를 가지고 공부하고 계신가요? 그 목표를 위해 무엇을 노력하고 있나요? 목표에 도달할 만큼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나요? 스스로에게 던지는 질문에 부끄럽지 않게 공부를 해 나아간다면 단연컨대 목표를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세종대 입학을 위한 수험 전략

삼수를 시작했을 때 목표가 뚜렷했기 때문에 다른 생각을 안하고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었습니다. 항상 수시는 정시점수를 기반으로 한 보험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정시 위주의 공부를 했습니다. 세종대학교는 다른 대학에 비해 수학반영비율이 매우 높고 절대평가인 영어의 등급 간의 점수차가 크기 때문에 과목별로 공부시간을 정할 때 이를 반영하여 공부하였습니다. 집에서 세종대학교까지 그리 멀지 않은 거리였기 때문에 종종 방문하여 마음을 다잡았고 세종대학교 에너지자원공학과에서 재학 중인 선배와 주기적으로 만나면서 조언을 얻곤 했습니다. 작년같은 경우 공부하다가 종종 지진이 나기도 했고 포항지진으로 인해 수능이 일주일 미뤄지는 사건까지 있었기 때문에 하루빨리 에너지

자원공학과에 입학하여 관련 공부를 하고 싶은 마음이 컸습니다. 고3 때와 달리 작년 수험생활에서는 목표가 뚜렷하게 있었기 때문에 보다 편안한 마음으로 공부에 임할 수 있었고 세종대학교에 입학한 저의 모습을 그리며 하루하루 공부하였기 때문에 더 시간이 빨리 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목표를 가지고 공부하라는 말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때로는 공부에 지쳤을 때 가족과 친구와의 대화보다 스스로 목표를 생각하며 마음을 다지는 것이 더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

그토록 꿈꿔왔던 합격이었기 때문에 합격의 기쁨은 이루말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제가 잘한 것이 있다면 돌아가더라도, 조금 늦었더라도 목표한 바를 이루기 위해 달려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재수 또는 N수를 생각하고 계실 수 있습니다. 만약 자신이 목표한 것이 있다면 현재에 안주하지 말고 도전하라 말하고 싶습니다. 한줄짜리 목표가 아닌 구체적인 목표를 가지고 끝까지 끊임없이 도전한다면 그 목표가 무엇이든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우수상

여러분만의 꿈을 따라가 보세요

경영학과 임성아

수시모집 [학생부 종합]
창의인재 전형

‘당신은 움츠리기보다 활짝 피어나도록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대학 입시를 준비하면서 저에게 가장 큰 힘이 되어주었던 말입니다. 아무런 준비 없이 고등학교라는 넓은 바다에 떨어진 저는 도대체 제가 어떻게 피어날지도 모르겠고, 제 미래의 모습이 어떻게 상상조차 안 났습니다. 그래서 무작정 ‘해보고 싶은 건 다 해보자’ 라는 각오를 하고 다양한 일들에 도전해보았습니다. 사실 도전이라는 멋진 말을 사용했지만 ‘왜 사서 고생하느냐’ 라는 말을 들은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각오가 없었다면 도전해보기 어려웠을 경험들은 제가 저라는 사람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준 좋은 기회였으며, 제 꿈을 찾는 데에도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꿈을 찾고
이를 위해 한
노력

〈어떻게 꿈을 찾고 이를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제 얘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꿈은 굉장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자신이 좋아하고 궁금해 했던 그것이 바로 꿈이 될 수 있습니다. 평소 텔레비전을 좋아하던 저는 어렸을 때부터 많은 광고를 보아 왔습니다. 다양한 장난감, 과자 광고를 보면서 저는 문득 ‘왜 책은 텔레비전에서 광고하지 않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고등학생이 되어 ‘끌리는 컨셉의 법칙’이라는 책을 읽고 제가 만든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마케팅에 흥미가 생겼습니다. 또한 저만의 전략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점은 제가 마케팅이 재밌어보였던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그 때 ‘도서정가제’ 기사를 보고, 책의 판매량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누구일까 궁금해져 출판 마케팅이란 분야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기사를 쓰기 위해 SNS에 대해 찾아보던 중 ‘북튜버’라는 이름으로 다양한 영상 매체를 통해 책을 소개하시는 분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영상 매체와 책의 조합이 어색하게 느껴졌지만 많은 대형 서점들에서는 이미 이 분들과 협업하며 많은 책을 홍보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마케팅 전략을 보면서 저도 신선하고 독특한 저만의 전략을 펼치고 싶어, 출판 마케팅 디렉터를 꿈꾸게 되었고,

경영학과에 진학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어떠신가요? 제가 마케팅이라는 꿈을 꾸게 된 것은 이렇게 사소한 계기로부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꿈을 이루기 위해 했던 노력들은 전부 여러분들의 ‘스펙’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교내 영자신문부에서 2년 동안 신문을 만들고 홍보하였던 일이 가장 기억에 남았기 때문에, 이를 자기소개서에 활용했습니다. 1학년 때 부원들과 힘을 합쳐 만들었던 연말 신문이 읽히지 못한 채 교무실 책장에 남겨져 있던 모습이 안타까워서, 2학년 때 동아리의 부기장을 맡은 후엔 적극적으로 신문을 홍보하기로 다짐했습니다. 우선 동아리를 홍보한다면 자연스럽게 연말 신문도 관심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부원들과 의견을 모아 그 달의 이슈를 다룬 Monthly 신문을 만들어 학교 홈페이지에 올리고 전 학급에도 붙여 보았습니다. 주목적은 홍보였지만, 친구들이 기사를 보고 주제나 디자인 등에 대해 말해주었던 것들은 다음 달 기사를 작성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학교 축제 부스에서도 그간 만든 신문을 전시하고 이벤트를 열어 신문을 홍보했습니다. 이렇게 노력한 결과, 연말 신문이 작년보다 많은 독자들의 관심을 받은 것을 보며 그 동안의 노력을 보상받은 것 같아 뿌듯해했던 기억이 납니다. 영자 신문부라는 마케팅과는 관계가 없어 보이는 활동을 하면서도 저는 제 진로와 이 활동을 연결지어 보았습니다. 이는 오히려 저에게 직접 만든 신문을 다양한 전략으로 홍보해볼 수 있던 좋은 기회가 되었으며, 소비자나 소통할 수 있는 출판 마케팅 디렉터가 되고 싶다는 저의 꿈을 확고히 다짐해볼 수도 있었습니다.

내가
세종대학교의
창의인재가
되기까지

진로를 정한 후에도 걱정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경영학과는 전국의 거의 모든 대학교에 있는 학과이기 때문에, 대학을 선택할 때에 정말 많은 고민을 하였던 것 같습니다. 이 때 저에게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던 것이 대학교의 홈페이지였습니다. 다양한 대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 학훈과 경영학과의 커리큘럼을 읽어 보며 비교해보았습니다. 다 같은 경영학과였지만 학교마다 중점을 두는 부분도 달랐고, 배울 수 있는 과목들도 다 달랐습니다. 그 많은 대학교들 중에서 제가 세종대학교를 선택한 이유는 바로 ‘세상과 소통하는 인재’라는 인재상과 다양한 국제 교류 프로그램들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꿈꾸던 마케팅의 가장 큰 핵심은 ‘고객과의 소통과 교감’이었습니다. 따라서 많은 외국인 친구들을 사귀고 직접 해외에 나가보며, 전 세계의 고객들과 소통할 준비를 해나가고 싶었습니다. 또한 세종대학교 경영학과는 AACSB라는 세계적인 경영교육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졸업한 후에 해외에 나가 일을 할 때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저는 제가 꿈을 찾아갔던 모험담과 제가 세종대학교가 찾는 그 인재라는 점을 어필하여 창의인재 전형에 도전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의 특별한 이야기, 도전해보세요

〈특별한 여러분들만의 이야기가 준비되었으면 걱정 말고 도전해보세요!〉

세종대학교 창의인재전형에서는 자신을 표현하는 자기소개서가 필요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자기소개서는 전공에 맞는 ‘스펙’ 들을 단순히 모조리 나열하는 것이 아닌, 지금까지 해왔던 활동 중에서도 인상 깊었던 이야기 몇 편만을 이용해 자신을 소개하는 글입니다. 저는 전공에 어울리는 스펙들이 부족했습니다. 따라서 제가 어떻게 마케팅 디렉터라는 꿈을 꾸게 되었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했던 저의 노력들과 그로부터 얻게 된 점들을 모두 자기소개서에 담았습니다. 또한 제가 ‘얼마나 마케팅과 잘 어울리는 인재인지’ 부터 ‘앞으로 세종대학교 경영학과에 입학하여 어떻게 공부해 나갈지’ 까지 진정한 저와 제 자세한 목표를 담았습니다. 사실 위에 적었던 영자신문부 활동과 제가 자기소개서에 적었던 독서토론 동아리는 경영학과와 잘 어울리는 스펙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러한 활동을 하면서 제가 하고 싶은 일에 필요한 자질을 길렀고, 제 꿈을 확신할 수 있는 큰 계기가 되어주었기 때문에 이를 자기소개서에 꼭 담아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기소개서는 오히려 학과에 끼워 맞춘 흔한 자기소개서와는 다른 ‘진짜 내 모습’ 이 담겨 있었기 때문에 훨씬 더 경쟁력을 갖출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세종대학교 창의 인재 전형에서는 1차 합격 후 면접고사를 보아야합니다. 사실 저는 말을 잘 하지 못하기 때문에, 1차 합격 이후에도 정말 기뻐지만 한편으로는 정말 걱정됐습니다. 게다가 면접고사 당일에도 비가 와서 면접 대기실에 앉아서 덜덜 떨었던 것이 아직도 선명히 기억납니다. 저는 친구들과 담임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 면접을 준비했습니다. 친구들에게 제 자기소개서를 주고 궁금한 질문들을 적어 달라 부탁한 후에 직접 답변을 해보기도 하고, 담임 선생님과 모의 면접을 보면서 실전에서도 긴장하지 않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가치관이나 생각들을 정리하는 것도 면접에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출판 마케팅 디렉터를 꿈꾸는 사람으로서 ‘도서 정가제’ 에 대한 저의 생각을 정리했었고, 왜 꼭 소통하는 마케팅 디렉터가 되려고 하는지, 또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면접을 보기 전까지 읽어보며 준비했습니다. 이러한 제 생각들을 정리하니, 생각지도 못한 질문들을 받았을 때에도 크게 당황하지 않고 대답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

〈피할 수 없다면 즐겨보세요.〉

대학교 입시는 정말 어렵지만 슬프게도, 그렇다고 피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 짧다면 짧은 학생 시절에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찾는 것은 힘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고등학교 시절에 남들보다 많은 경험을 해보며 자신의 꿈을 찾아가는 일은 생각보다 훨씬 뿌듯할 것이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여러분의 입시 선배로서 당당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만의 특별한 이야기를 잘 녹여낼 수 있다면, 세종대학교 창의 인재 전형은 여러분들의 꿈을 이루기까지 탄탄한 계단이 되어줄 것입니다. 앞으로 정말 힘든 일이 가득하겠지만, 성공하는 사람은 항상 끝까지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꼭 내년에 멋진 꿈을 꾸시는 여러분들을 세종대학교에서 만나보고 싶습니다!

최우수상

나는 이렇게 세종대에 합격했다!

국제학부 김민송

수시모집 [학생부 교과]
학생부우수자 전형

『위대한 개츠비』, 『노르웨이의 숲』, 『오만과 편견』. 모두 제가 가장 좋아하는 책들이지만 우리나라 작가가 쓴 작품이 아니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중고등학교 시절 외국 작가가 쓴 책들에 깊이 빠져했습니다. 눈앞에서 경험할 수 있는 세상 밖이 궁금했던 제게 외국에서의 생활과 모습이 자연스레 그려진다는 점이 매력적이었습니다. 자연스럽게 번역가라는 직업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후 외국의 작가와 우리나라의 독자층을 연결해주는 오작교 역할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분명한 목표가 생기고 난 후 고등학교 생활을 더욱 충실히 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 학교는 신설 학교라 영어 원서가 도서관에 충분히 비치되어 있지 않았습다. 그래서 영어 선생님께 건의하여 reading assistant로서 원서 읽기 수업을 일주일에 한 번씩 선생님을 도와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영작 수업에 대해 두려워하던 친구들의 흥미를 끌어올리기 위해 처음에는 팝송 중에서 독특한 표현을 찾는 수업을 하였습니다. 유명한 팝송인 Love Yourself에서

‘For all the times that you rain on my parade’ 라는 가사에서 rain on my parade와 같이 직역으로 하면 어색하지만 고유의 뜻을 가진 관용 표현을 익혔습니다. 또한 Oxford Bookworms Stage 2의 에피소드들을 공부할 때에는 영어식 사고를 바탕으로 한 작문 프린트를 준비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중요하다’를 영작할 때에는 단순히 직역한 important가 아니라 have a significant value, play an important role 등과 같은 표현들을 함께 익혔습니다. 이를 통해 영어를 어색하게 한국어로 직역하지 않더라도 바로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을 키우게 되었습니다.

또한 학교 근처의 중학교를 방문하여 2년간 꾸준히 교육 봉사 활동을 하였습니다. 제가 방문한 중학교의 학생들은 축구부에 속해 있어서 공부할 시간이 상대

적으로 부족했습니다. 고민 끝에 거꾸로 학습이라고도 불리는 플립 러닝(flipped learning)을 적용해보기로 하였습니다. 플립 러닝은 다양한 사전적 정의가 있지만, 제가 여기서 적용한 플립 러닝은 미리 선생님께서 다음에 배울 주제에 대해 짧은 동영상 만들어 학생들이 미리 공부할 수 있게 한 후 수업시간에는 그것에 대한 추가설명과 실험을 하는 것을 뜻합니다. 가장 관건이 되는 것은 학생들이 미리 동영상을 보고 올 지를 확인할 수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 학생들의 호응이 가장 높았던 요리 수업과 영어를 접목시키기로 하였습니다. 미리 동아리원들과 함께 영어로 샌드위치를 만드는 동영상을 제작하였습니다. 다행히 학생들은 빠짐없이 수업 전에 미리 동영상을 보고 왔고 새로운 수업 방식에 흥미를 느끼며 더욱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바쁜 학교생활 중이었지만 독서를 게을리 하지 않았습니다. 번역가가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자질 중의 하나가 등장인물들의 상황을 이해하고 한국어의 결을 살린 글을 읽고 쓰는 능력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등장인물들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는 훈련을 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위대한 개츠비』에서 데이지를 간절히 원하는 개츠비의 사랑은 이기적인 것일지를 고민하였고 개츠비가 진정으로 원했던 것이 과연 데이지였을까 아니면 그가 평생 갖지 못했던 높은 신분이었는가에 대해 같은 책을 읽은 친구들과 토론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한국어의 맛을 살린 글을 쓰기 위해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독후감상문, 일기 등과 같은 글을 쓰는 연습을 하였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이 되어 진학을 고민하던 중 세종대학교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번역가가 꿈인 제게 다양한 나라에 학생들을 위해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폭넓게 마련해놓은 세종대학교는 꿈의 학교였습니다. 일반 교환학생, 방문학생 등 각각의 혜택이나 체류 기간 등 넓은 범위의 조건을 지닌 다양한 어학 프로그램 외에도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특히나 외국어에 취약한 학생들을 위해 해외 자매대학에 가 어학연수를 받은 후 교환학생이나 방문학생에서 수업을 들은 후 학점을 취득하는 하이브리드 프로그램은 외국어에 능통하지 않은 학생을 위한 점에서 폭넓은 학생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세종대학교는 자신들의 학생들을 단순히 학업적인 측면에서만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취업에 관련해서도 다양한 직장에서 실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해외 직무 체험 방문 학생 프로그램은 세계적인 기업의 현장에서 생생한 교육을 받고 실제 현장에서 업무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경험을 쌓도록 유도하였습니다. 또한 이 프로그램은 학점도 인정을 해주어 세종대학교 학생들이 실질적인 취업에서의 경쟁력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세종대학교 학생이 되고 싶다는 꿈을 가진 결정적인 이유는 중국의 상해 교통 대학교와 복수학위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중국어에 흥미가 있던 저는 중국에서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명성이 높은 대학교들 중 하나인 상해 교통 대학교와의 복수 학위 프로그램을 통해 중국어를 더 깊게 익히는데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세종대의 다양한 어학 프로그램은 번역가가 꿈인 제게 세종대학교의 입학에 있어서 결정적인 이유가 되었습니다.

저는 세종대학교 국제학부에 학생부 우수자 전형으로 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는 내신 관리를 소홀히 하지 않았고, 내신 관리를 넘어 정시에서도 세종대학교에 입학하기 위해 내신과 수능 공부의 비율을 적절히 섞으며 공부하였습니다. 내신과 수능 모두 범위가 겹치던 국어, 영어, 수학과 제가 선택했던 사회탐구 영역 과목이었던 생활과 윤리와 한국 지리는 내신 공부를 할 때도 더 깊게 공부하도록 노력했습니다. 수능을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기간과 내신을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기간을 적절히 분배하였고 주요 과목들은 수능과 내신을 구분하지 않고 모든 개념들을 이해가 될 때까지 공부하였습니다. 이러한 공부 방법은 내신 시험 기간에 주요 과목이 아닌 다른 과목을 공부할 시간을 확보할 수 있게 하였고 이는 모든 과목에서 고득점을 받는 데 주요한 이유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내신을 꾸준히 유지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성실함이었습니다. 너무나 당연해서 간과되기 쉽지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덕목이었습니다. 저는 사고욕을 전혀 받지 않고 자기 주도적 학습, 즉 자습 시간을 활용하여 시험을 준비하였습니다. 학교에서의 쉬는 시간, 점심시간과 같은 자투리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여 공부 시간을 확보하였습니다. 혼자 공부하다보니 지금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불안할 때도 있었지만 플래너에 오늘 공부한 목록들을 적어가며 객관적으로 저 자신을 살피려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스톱워치로 자습 시간을 매일 체크해 나타내지 않도록 경계하였습니다. 이렇게 자습을 한 결과 가장 빛을 본 과목은 다른 아닌 영어였습니다.

제가 수능을 본 2018학년도 당시, 영어 과목에서는 EBS 연계 출제 기조가 유지되었습니다. 자습 시간이 상대적으로 부족할 수밖에 없었던 현역이었기 때문에 최대 효율을 통해 수능 특강, 수능 완성과 같은 영어 연계 교재를 훑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래 기억할 수 있도록 N회독 학습을 하였습니다.

먼저 1회독 때에는 시간을 정해두고 풀고 모르는 어휘를 체크하고 외운 후 지문 요약하기를 하였습니다. 우선 시간을 정해둔 이유는 어느 정도의 속도감이 있어야 긴장도 되고 빨리 푸는 연습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르는 어휘를 체크할 때에는 형광펜으로 밑줄을 치고 따로 단어장을 만들어서 적었습니다. 자투리 시간에 틈틈이 보기에는 수첩에 적는 것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영어 지문을 요약하였습니다. 지문의 흐름을 따라가며 연계 교재 여백에 영어로 요약하였는데 그대로 표현을 옮겨 적어 보거나 그림도 그려보고 화살표로 관계를 표시하며 저만의 요약을 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렇게 영어 지문을 요약하니 시간에 쫓기는 수능 막바지 때 자신이 요약한 몇 줄을 읽고 전체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이 좋았습니다. 또한 직접 쓰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기억이 더 오래 갔습니다.

2회독 때에는 1회독 때 실시한 지문 요약한 것을 보고 내용을 떠올리는 훈련을 하였습니다. EBS 연계는 지문이 직접적으로 연계되는 경우도 있고 간접적으로 글의 주제만 살짝 비슷하게 출제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내용 파악이 급선무라는 생각에 글의 내용을 기억할 수 있도록 집중하였고 헛갈리는 지문이나 어려운 지문들은 골라서 체크하였습니다.

3회독 때는 난이도별로 지문들을 분류하였습니다. 내용을 완전히 숙지한 지문들은 과감히 X표시를 하고 어려운 지문들은 따로 체크 표시를 하였습니다.

4회독 때는 X표시한 지문은 읽지 않았고 과감히 버리고 체크 표시가 된 지문은 반드시 정복한다는 마음으로 집중적으로 공부하였습니다. 아무 표시도 하지 않은 지문들의 경우 1회독 때 실시한 지문 요약한 것을 위주로 보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공부하니 연계 교재를 효과적으로 훑을 수 있었고 영어 자체에 대한 흥미도 상승하였습니다. 비록 입시 공부라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중간에 놀고 싶은 적도 많았지만 꾸준한 반복을 통해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영어와 마찬가지로 수능에서 고득점을 성취할 수 있었던 과목들 중 하나는 한국 지리였습니다. 한국 지리는 과목 특성상 암기해야 할 내용과 이해해야 할 내용이 많습니다. 특히나 지역의 위치와 각 지역의 특징들을 외우는 것은 엄청난 양이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공부할 때 주로 자투리 시간을 가장 많이 이용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자투리 시간이라고 생각되는 시간이 적었습니다. 하지만 버스를 기다리는 시간이나 밥을 먹으러 가는 시간 등 그저 흘러보내는 시간들이 많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 혼자서 간단한 스피드 퀴즈를 푸는 것처럼 테스트를 하며 공부하였습니다. 유독 약하거나 헛갈리는 지역들은 따로 표시하여 수능을 보기 직전까지도 다시 암기하였습니다. 또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몇 번이고 스스로 생각해보며 어떤 부분을 모르는 것인지 다시 확인해가며 공부하였습니다. 저 스스로 고민을 오래 하면 기억이 오래 지속될 뿐만 아니라 모르는 문제가 나왔을 경우에 필요한 생각하는 힘을 기를 수 있다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이를 반복한 후 끝까지 모르는 경우에는 선생님께 답으로 가는 힌트만을 듣고 저 혼자서 다시 생각하기 위해 답을 듣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공부 방식은 시험에서 모르는 문제가 나왔을 때 당황하지 않는 힘을 기르는 데에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수험생 시절, 공부하는 것도 쉽지 않았지만 꾸준한 생활 패턴을 유지하고 불안한 마음을 억누르는 것도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매일 매일 정해진 시간에 기상하고 정해진 시간을 넘지 않게 자며 생활 패턴을 체화하였습니다. 매달 모의고사를 보고 오르지 않는 성적을 보며 절망할 때도 있었습니다.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해도 성적이 떨어지니 다 그만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딱 하루만 우울해 하고 다시 시작하였습니다. 최대한 냉정하게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노트 한 칸에 모의고사 이후 학습 방향을 상세히 적었습니다. 과목별로 시험을 통해 드러난 문제점을 적고 어떻게 해결을 할 수 있을까를 구체적으로 고민하여 적었습니다. 이를 통해 객관적으로 저 자신을 돌아보며 수험생활을 슬기롭게 헤쳐 나갈 수 있었습니다.

10월, 11월이 되자 모두가 그렇듯 불안해지기도 하였습니다. 수능 고사장에서 앞 사람이 다리를 떨면 어쩌나, 수능을 망치면 어쩌나, 이런 저런 고민도 많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구체적인 행동 매뉴얼을 정하여 다양한 변수에 대비할 수 있도록 훈련하였습니다. 불안한 감정을 회피하거나 잘못된 방향으로 풀려고 하기 보다는 하나하나 대비해가며 스스로를 위로하였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공부를 해서 온 세종대학교이기에 저는 대학에서 하고 싶은 것이 정말 많습니다. 어떤 마음가짐으로 대학에 다녀야 할까, 무엇을 대학에서 배워야 할까 등등을 고민하였는데 최근에 읽은 윌리엄 데레저워츠의 『공부의 배신』에서 방향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아래는 책에서 발췌한 부분입니다.

“대학이 존재하는 첫 번째 이유는 학생들에게 생각하는 법을 가르치기 위해서이다. 습관적으로 의심하고 이러한 의심을 실행으로 옮기는 능력을 개발한다는 뜻이다. 어떤 일을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건, 각자 자신만의 결론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략) 만약 학사 학위를 받을 때까지도 생각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다면 나중에 배울 가능성은 거의 없다. 따라서 오로지 취업 준비에만 매달린 학부생은 4년의 시간을 허비한 셈이다. 대학의 목적은 당신이 더욱더

주의 깊게, 더욱더 책임감 있게, 더욱더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더욱 완전하게 생을 살도록 하는 것이다.”

아무리 취업하기가 어렵고 바쁜 각박한 현실이라고 해도 저는 대학에서 꼭 배워야 할 것, 즉 자신의 삶과 주변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고 성찰하는 것을 게을리 하지 않을 것입니다. 세종대학교에 입학한 18학번 새내기인 만큼 당장 취업준비생이 되기보다는 먼저 배움을 쫓는 학생이 될 것입니다.

최우수상

나는 이렇게 세종대에 합격했다!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김 영 호

정시모집 [수능]
일반학생 전형

때는 2017학년도 수능을 치르고 대입 준비를 할 시기였다. 고등학생 때 나를 학원도 다니고 과외도 받으면서 공부를 했지만 나는 성적이 썩 좋지 못했다. 하지만 나는 더는 대입을 위한 공부를 하고 싶지 않았다.

진부한 입시 공부를 그만두고 끔찍한 현실에서 도망치듯 대학교에 입학했다. 입시 준비를 하면서 받은 스트레스에 대한 보상을 받고 싶은 마음뿐이었다. 3월 한 달 동안 정말 미친 듯이 놀았다. 새내기 배움터도 가고 학기 초에 여러 술자리를 가지면서 동기들과 친해지기 시작했다. 대학에서 사귀 친구들이 너무 좋았다. 친구들과 함께 강의 출석만 하고 나와서 놀거나 해가 중천에 떠 있을 때 공원에서 술도 마셔보고 태어나서 처음 해보는 경험에 내 마음은 나도 모르게 항상 들떠 있었다. 밤마다 ‘아 내일은 어떤 재미있는 일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며 잠자리에 들곤 했다.

그러나 항상 내 마음 한구석에 수능 성적에 대해 아쉬움이 있었다. 동기들과 수업을 들을 때마다 그 아쉬움은 나날로 커져만 갔다. 구체적인 예로 영어 기초 수업을 들을 때 동기들은 정말 기초 단어조차 잘 알지 못했다. 그때마다 나는 ‘아, 내가 이 정도 애들과 수업을 들을 정도로 공부를 안 했던 건 아닌데...’라는 생각이 들었다. 솔직히 말해서 자존심이 너무 상했다. 어떤 동기는 심지어 나에게 이런 말을 했다. “영호야 나 놓어준 적성으로 지원했는데 내신 6, 7등급인데 합격함. 대박이지?” 내 자존심을 갈기갈기 찢어 날려버린 말이었다.

나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정시 준비를 했기 때문에 내신은 3등급 초중반 정도를 유지했고 모의고사 성적이 내신보다 더 잘 나왔었다. 정시로만 대학에 입학하겠다는 당시의 어리석음에 나는 수시 6장을 전부 쓰지 않았었다. 나의 내신으로는 미치지 않고서야 지원하지 않을 대학을 정시로 입학했다는 생각에 너무나도 억울하고 서러웠다. 나는 결국 재수를 결심하고 자퇴서를 학교에 제출했다.

재수를 결심하고 나는 나만의 규칙을 세웠다. 절대 고3 때 했던 바보짓을 반복하지 않고 매일매일 수능 전날까지 단 하루도 빠짐없이 공부하자고 다짐했다. 또한, 단순히 점수에만 집착하기보다는 항상 수능이 끝난 후 후회가 남지 않는 공부를 하고자 노력했다. 후회가 남지 않는 공부 그 어떤 공부보다 값진다고 생각했다. 나는 국어 영역에 취약했지만, 오히려 그것이 오히려 변해 다가왔다. 국어 영역에서만은 만점을 쟁취하고 싶었다. 공부 의지는 하늘을 찌를 만큼 치솟았고 다음 날 바로 학원에 등록했다. 나는 6월 모의고사 전까지 정말 누구보다 많이, 열심히 했다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공부했다. 아침 8시까지 학원에 가서 점심, 저녁 약간의 휴식 시간을 제외하고 자정까지 의자에 궁둥이를 붙였다. 공부 의지가 강해서인지 나는 도통 지칠 줄을 몰랐다.

그렇게 한 달 공부해서 본 6월 모의고사에서 나는 매우 선방했다. 나는 자만하지 않고 오히려 이 성적에서 학업 의지를 뽐내었다. ‘한 달 공부했는데 이정도야? 너 진짜 끝까지 열심히 하면 무조건 할 수 있어’라는 희망이 가득 찬 생각으로 자신을 칭찬하고 위로하며 성적표를 접어 가방에 넣었다.

앞서 말했듯이 나는 정말 국어영역에서 만점이 너무 맞고 싶어서 하루에 국어 공부를 5시간 정도 했다. 기출문제 분석을 지문을 외울 정도로 질리도록 공부했다. 단순히 문제풀이가 아니라 나 자신을 쏘아가면서 이 문제에서 왜 이 선지를 택했고 뭐가 잘못됐고 뭐가 옳았는지, 다음에 틀리지 않으려면 어떤 관점으로 지문에 접근해야 하는지, 어떤 논리가 가장 완벽한 논리인지 파악하기 위해 글자 하나하나를 분석했다. 물론 실전 감각을 극대화하기 위해 실전 사설 모의고사를 풀면서 국어 영역에서 매우 중요한 시간을 조절하는 능력을 키웠다. 이렇게 공부를 하니 국어 독해 능력이 향상되어 간다는 것을 피부로 느꼈고 수능 보기 전 가장 마지막 모의고사에서 좋은 성적을 받아 나 스스로 칭찬을 정말 많이 해주었다. 재수 성공에 대한 희망이 점점 확신으로 변해갔다. 나는 국어 공부를 하면서 느낀 나의 약점들, 중요한 시험 전략 등등을 A4용지에 적었다. 돌발 상황이나 여러 상황에 대한 경우의 수를 생각하고 그에 따른 대처 방법을 적어 내려갔다. 마지막에는 ‘어떤 돌발 상황이라도 당황하지 말고 심호흡 한 번 하고 침착하게, 정확하게 풀자’라는 문구를 썼다. 수능 시험날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불안했고 열심히 공부한 만큼 실력대로만 성적이 나오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가 국어 영역 공부에 대해서만 다루었지만, 나머지 과목도 나에게 맞는 인터넷 강의를 찾아 강사들의 커리큘럼을 따라가며 열심히 했다.

독학 재수 학원의 경우 재종반 학원이나 기숙학원과 비교해 느슨한 감이 있는 것은 사실이고 그만큼 학생들도 풀어지기 쉬웠다. 등원 시간은 8시였지만 12시 넘어서 오는 학생들이 태반이었고 심지어 중간에 피시방이나 노래방에 갔다 오는 학생들도 많았다. 물론 나에게 그런 유혹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다만 공부 의지가 너무 강해서인지 작년의 나와는 확실히 달라진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수능 전날 어머니께 아날로그 시계 하나를 달라고 했다. 컨디션 조절도 중요하게 생각해서 2주 정도 전부터 생체 리듬 조절을 했고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 아버지 자가용을 타고 고사장으로 향했다. 아버지가 “아들, 열심히 한 만큼 긴장하지 말고 편하게 봐” 라고 말씀해주셨다. 순간 가슴이 답답해지면서 눈물이 핑 돌았다. 아버지도 재수해서 대학에 들어가셨기 때문에 누구보다 나를 이해하고 지금까지 지지해주셨다는 생각에 눈물이 차올랐다. 나는 제일 먼저 고사장에 도착했고 자리에 앉아 의자와 책상 높이 확인하고 비문학 지문 요약을 시작했다. 그리고 하프 모의고사 한 회를 풀면서 머리를 예열했다. 마지막으로 국어 시험 행동 요령 종이를 꼭 읽고 마음속으로 되새김질했다.

시계를 말아 책상 모서리에 두고 시험 시작종을 기다렸다. 시작종이 울리고 문제를 풀기 위해 고개를 숙이는 순간 짹짹 소리가 머릿속을 울리기 시작했다. 화법 첫 지문 단 한 글자도 내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았다. 진짜 울고 싶었다. 시계를 주신 어머니를 원망할 수도 없고 ‘왜 하늘은 내게만 이런 시련을 주나?’ ‘난 진짜 국어 공부 열심히 했는데 다 망했다’ 라는 생각이 들었다. 정말 너무 억울했다. 시간을 확인해보니까 약 4분 정도가 지나있었다. 정신 차리고 행동요령 마지막 문구를 떠올렸다. 심호흡을 한 번 크게 하고 다시 지문을 읽었다. 그런데도 정말 도저히 글이 읽히지 않아서 결국 감독관님을 불러 가져온 시계를 가져가 달라고 말하고 시계 없이 문제를 풀어나가기 시작했다. 그냥 나를 믿고 싶었다. 그동안 실전 모의고사를 풀면서 시간 연습을 얼마나 했는데, 눈에 안 보여도 몸이 기억할 거라고 굳게 믿었다. 믿어야만 했다. 문제를 다 풀고 나니까 감독관님이 5분 남았다고 알려주셨고 나는 바로 사전채점표를 적었다. 처음에 정신적으로 무너진 거치고 느낌이 좋았다.

그렇게 나머지 시험을 편하게 치르고 고사장을 빠져나왔다. 그냥 다 끝났다는 생각에 기분이 정말 이상했다. 고사장 앞에서 재수학원 친구들을 만났는데 왜 눈물이 뚝뚝 흐르는지, 서로를 토닥여주고 다독여주었다.

집에 와서 사전채점표를 들고 수능 사이트에 답을 입력했다. 국어 영역 채점을 하는데 2번 6번 9번 12번을 틀렸다. 3등급이었다. 나는 평가원 모의고사에서 화작문 영역에서 틀린 적이 없었다. 그냥 너무 서러웠다. 몸 전체가 바들바들 떨릴 정도로 너무 서러웠다. 어머니를 원망했다. ‘시계만 아니었다면’ 이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지배했다. 그 날 밤에는 잠이 오지 않았다. 그냥 내 실력인데 어머니를 원망하는 나 자신한테 화도 났고 한편으로는 이해도 되었다. 정말 처음 느껴보는 복잡한 감정이었다. 이런 내가 너무 불쌍했다.

성적도 애매한 감이 있고 아무래도 해를 거듭할수록 대학별 정시모집 인원이 감소하고 N 수생들은 늘어가고 있어서 입시 전략을 세우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다. 서로의 눈치 싸움이 치열한 문과 정시 입시 때문에 원서 접수 마감 전까지 어느 학교 어떤 과에 지원해야 하는지에 대한 생각으로 머릿속이 너무 복잡했다. 평소 방송 쪽에 관심이 있었지만 무조건 방송 관련 학과에 입학해야겠다는 생각은 아니었기 때문에 대학교 명성에 더 신경을 썼다. 정시 배치표를 보고 대학교를 찾아봤다. 처음부터 ‘나’ 군에는 세종대가 딱 보였다. 반영비율이나 성적 수준이 내 수능 성적과 맞다고 생각했고 방송에 관심이 있었던 나로서 세종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에 지원해야겠다는 확신이 들었다.

결국, 세종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에 합격했다. 욕심이 과해서인지 기쁘지 않았다. 그러나 이 생각은 얼마 지나지 않아 180도 바뀌었다. 여러 행사에 참여하다 보니까 동기들과 선배들을 많이 사귀게 되었다. 나에게서는 너무 과분할 정도로 좋은 사람들뿐이었다. 그뿐만 아니라 수업이 너무 적성에 맞아 흥미를 느낄 수 있었다. 여러 소모임이나 학회는 내가 원하고, 정말 나에게 유익한 것들을 얻어갈 수 있도록 운영이 잘되고 있었다. 자연스럽게 학교생활에 몰들어가는 나를 볼 수 있었다. 학교 강의가 없는 날에도 학교에 가서 동기, 선배들과 어울리고 행사나 소모임에 참여하고 어린이대공원에도 놀러 가고 뚝섬에도 놀러 갔다. 요즘 하루하루가 너무 행복하다.

최우수상

오늘을 위해서 충실히 산다면 세 마리 토끼가 따라온다

만화애니메이션텍전공 이 효 정

수시모집 [학생부 종합]
창의인재 전형왜 세종대
만화
애니메이션?

제 꿈은 이러한 질문으로부터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삶의 태도를 변화시킨 만화나 영화, 애니메이션이 있습니까?’ 아마 대부분 만화나 영화, 애니메이션을 보고 감명받은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제 꿈은 제가 만든 작품이 사람들에게 잠깐의 감명 혹은 성찰을 갖게 하고 더 나아가서 삶을 살아가면서 마주치는 수많은 느낌표 중 하나의 느낌표가 되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 세종대학교를 접한 것은 중학교 때 제가 좋아하는 일러스트레이션 작품 작가의 블로그를 발견했을 때였습니다. 세종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 학과를 졸업한 선배의 블로그에는 재학 기간 동안의 각종 과제와 졸업 작품에 대한 포스팅도 있었습니다. 중학생 때 그것을 보며 ‘이렇게 멋진 작품들을 만들고 싶은데 이를 위해서는 많은 지식들을 배우고 다양한 경험을 쌓아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고 이것이 세종대학교를 목표로 하게 된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세종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 학과는 만화 애니메이션, 시각효과의 트랙을 설정할 수 있고, 이에 맞춰 만화와 애니메이션 기초 개념 파악과 콘텐츠 제작 위한 기술적 방법, 디지털 제작기법 연구에 대해 배우며 선택한 트랙에 대한 폭넓고 깊은 지식을 쌓을 수 있게 해줍니다. 또한 디지털 만화, 일러스트레이션, 애니메이션 제작을 위한 분야별 실기 실습을 통해 전공을 심화할 수 있어 애니메이션, 게임, 캐릭터 산업계의 다양한 진로들을 접해보고 설정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일 것입니다. 또한 최근 문화 산업을 이끌어 나갈 보이는 VR(가상현실)과 AR(증강현실) 기술을 접할 수 있고, 그에 맞춰 세종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과에서는 시각효과(VFX), 3D 렌더링, 3D 이펙트 스크립트 수업과 같은 차별화된 수업 커리큘럼이 존재합니다. 또한 각 분야의 국내 최고의 교수님들이 이러한 양질의 콘텐츠를 강의하고 계십니다. 이와 같이 세종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과에서는 세계적 비전을 가지고 그에 맞춰 글로벌 리더를 양성해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세종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과가 제 꿈 중 하나가 된 이유입니다.

모든 분야에
능통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한 분야가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능통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세계적인 작가의 수려한 그림과 초등학생의 일기를 만화로 합쳐놓으면 어떨까요?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해 보일지 몰라도 초등학생 일기의 줄거리 만화를 보고 감동 받는 사람은 없듯이 그림과 스토리는 작품 내에서 우위를 따질 수 없이 중요한 요소입니다. 좋은 작품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전공 지식에서 나아가 모든 분야의 폭 넓고 깊은 지식과 경험이 필요합니다.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문학 시간에 ‘삼포 가는 길’이라는 작품을 배우고 깊게 감명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그 작품을 배우며 한국의 급격한 산업화로 인한 서민들의 애환에 대해서 접하게 되었습니다. 작품 속, 힘든 상황에서 상대방의 내면의 아픔에 대해 진정으로 이해하고 의지하는 모습은 요즈음 우리가 본받아야 할 모습으로 느꼈습니다. 저는 문학 시간에 배웠던 작품들 중 이 작품에 애착이 갔고 책 표지를 만드는 교내 대회에 참가해 제가 느꼈던 감정과 느낀점들을 표현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느꼈던 감동을 좋은 연출을 통해 그대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길 원했지만 머릿속에 있는 이미지를 손으로 구현해내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원하는 이미지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연출 공부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고 영화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의 미장센에 대해 탐구하게 되었습니다. 두 개의 보색 중 밝은 색을 더 부각해 주는 보색대비와 어두운 배경 속 작은 광원을 이용하여 작품 전체 분위기를 살리는 방법을 그림에 적용하며 그림이 제가 생각한대로 표현되는 것에 대해 성취감을 느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탐구한 보색 대비와 명도 대비는 모두 힘든 상황에서 작은 희망을 돋보이게 하는 작품의 표현과 맞닿아 있다고 느껴졌습니다. 이러한 유사성이 작품을 더 돋보이게 한다는 걸 알게 되었고 여러 분야의 작품들을 감상할 때 이러한 점들을 관찰하며 감상하는 것이 제 그림의 양분이 될 수 있다는 걸 느낀 계기가 되었습니다.

만화 애니메이션 학과를 목표로 하게 되면 중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지식은 진로와 연관성이 낮다는 이유로 학업을 소홀히 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세종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 만화 애니메이션학과에서는 작품 창작에서 더 나아가 문화 산업 전반을 이해하고 발전을 이끌어 나갈 재목을 길러나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종대학교에서는 만화 애니메이션 입시 유형의 혁신을 통해 그림 소양 시험과 이공계열의 최신 이슈들을 결합한 드로잉 테스트 · 면접으로 융복합적 인재를 선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의 문제점에 대한 관찰력을 가지고 이를 개선해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진로를 설계하고 노력해갈 수 있는 큰 시야를 가지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좋아하는 친구와 함께 하면 즐겁습니다

따라서 고등학교 재학 기간 동안의 학습 과정을 통해 배운 다양한 교과목의 지식들과 대학 재학 동안의 전공 지식을 결합한다면 본인의 세계관과 작품을 창작할 수 있는 작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제 전공인 미술과 함께해서 학교 교과 공부를 할 수 있었습니다. 2학년 때 제 고민은 ‘윤리와 사상’ 과목의 내용이 많아 점수가 공부한 것에 비해 낮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랜 시간 공부했지만 성적은 쉽게 오르지 않았고 오히려 무작정 외우는 데 더 급급해서 새로운 걸 알아간다는 즐거움이 사라져 과목에 대한 흥미도 잃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즐겁게 공부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생각하던 중 교과서 옆에 있던 저의 그림 연습장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윤리와 사상 교과서를 다시 펴서 읽은 다음 그림 연습장에 사상가들을 캐릭터화시켜 그린 후 말풍선을 달아 사상가의 유명한 명언을 적고 사상들을 아래에 적어나갔습니다. 저의 관심 분야인 그림을 통해서 정리하니 교과서에 쓰여 있는 내용이 단순히 외워야 하는 글자들의 나열이 아니라 제가 만든 캐릭터의 대사 같이 느껴졌습니다. 그러자 제가 만든 사상가들이 나타나 자기 소개를 하고 저에게 암기를 시켜주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하니 다시 교과에 대한 흥미를 느낄 수 있게 되었고, 다른 교과를 바라보는 태도 또한 달라졌습니다. 이러한 학습 과정을 통해 다양한 교과목에서 풍부한 지식을 얻을 수 있었고, 인문학적 지식이 그림의 양분이 될 수 있을 거란 확신을 하게 되어 공부도 즐겁게 여겨졌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생활 동안 여러 인물을 만들어 친구가 되었고, 그 친구들이 저에게 큰 도움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공부와 그림의 융합은 다양한 지적 탐구에 흥미를 갖게 하고 작품을 창작하는 데 있어서 기반이 되었습니다.

꿈의 첫번째 관문에 들어오기 위해

최신 게임을 플레이 하다보면 게임 콘텐츠와 스토리의 재미 뿐만 아니라 캐릭터도 게임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최근 세계적으로 열풍을 일으킨 게임 ‘오버워치’ 역시 매력적인 캐릭터로 관심을 모을 수 있었는데 제 롤모델은 이런 매력적인 캐릭터들을 디자인한 현 블리자드 아티스트 이정아씨입니다. 이정아씨의 작업들은 단순히 캐릭터를 디자인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캐릭터의 특징과 성격을 부여합니다. 블리자드에서는 만화나 단편 애니메이션으로 이러한 점을 담아내 제작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을 캐릭터와 함께 호흡하게 만든다고 느껴졌습니다. 제 롤모델과 같이 세계적 기업에서 다국적 소비자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작업을 만들어내는 아티스트가 되기 위해서는 그림과 영어 실력이 필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림 실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친구들과 크로키를 위한 소모임을 만들었습니다. 서로의 크로키를 보며 열의를 다졌고 부족한 점을 지적하며 발전해나갔습니다. 키만큼 그림 공책을 쌓는 것을 목표로 삼아 인체의 기초적 지식을 확립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영어공부를 위해서는 제가 평소 좋아하는 영화를 틀고 대사를 가린 채 무작정 따라했습니다. 처음에는 잘 따라 하지 못하고 웅얼거렸지만, 나중에는 문장도 따라 할 수 있었습니다. 더욱이 이 과정을 통해서 영어를 배울 수 있었을 뿐 아니라 다른 문화도 경험해 볼 수 있었습니다. 세계화 시대에 경쟁력 있는 아티스트가 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사고를 접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느껴졌고, 외국인 펜팔 친구와 영어로 그림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들을 나누었습니다. 이를 통해 영어 실력을 향상했고 다양한 문화에 대한 상대주의적 태도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다양한 문화를 접하고 저만의 감성으로 그려내어 세계적으로 사람들의 감성을 움직이는 아티스트가 되고 싶다는 꿈을 가지고 노력해왔기 때문에 입시는 제 꿈을 위한 관문 중 하나의 과정 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입시를 위한 자기 소개서와 생활기록부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꿈을 가지고 꾸준히 노력한다면 그 열정의 발자취가 자연스레 남게 되어 더 진솔하고 끌리는 나만의 이야기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세 마리 토끼를 잡을 욕심

모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욕심을 많이 부려야 합니다.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다 다 놓친다.’ 여러 가지에 욕심을 부리면 다 놓칠 수 있으니 한가지에만 집중해야한다고 경고하는 말을 쉽게 들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종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과를 목표로 한다면 세 마리 토끼를 잡을 욕심을 가져야 합니다. 우수한 실기력, IT와 스토리텔링 기반의 다변화된 기술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창의성, 꿈에 대해서 목표를 가지고 노력하는 추진력, 이 세 가지 영역에서 균형 있게 능력을 갖춰야 합니다. 한가지 능력 개발에 몰두하지 않고 여러 가지 영역의 능력을 향상시킨다는 것은 어렵고 불안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저 역시 입시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그 불안감을 조절하는 것이 가장 어렵게 느껴졌습니다.

제가 입시를 하며 가슴에 새기고 살았던 윌리엄 오슬러의 명언을 여러분께 말씀해드리고 싶습니다. “앞뒤의 문을 꼭 닫고 오늘을 위해서만 충실히 생활하십시오. 내일과 어제의 짐까지 모두 오늘 지고가려 한다면 아무리 강한 사람이라도 쓰러지게 됩니다.” 현재의 내 실력에 대해서 불안하고 과거의 노력에 대해서 후회하고 미래의 결과에 대해서 누구나 불안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 꿈을 향해 계속 노력할 수 있는 이유는 과거와 미래의 문을 닫고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꿈이라는 길을 걸으며 오늘날을 살기 위해 가슴이 뛰다면 세 마리 토끼는 여러분의 뒤를 쫓아오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우수상

나는 이렇게 세종대에 합격했다!

물리천문학과 박수빈

수시모집 [학생부 종합]
창의인재 전형세종대 선택과
수험전략,
학과 공략 방법

고등학교 1학년 때, 천체관측동아리에 들어가 활동을 하면서 교내 망원경들의 설치 및 운용, 관측방법과 DSLR 카메라와 Starry Night 프로그램의 사용법을 배웠고 태양의 흑점, 토성, 수성, 고리성운 등의 천체를 관측하며 천체관측의 매력을 느꼈습니다. 동아리에서 배운 것을 토대로 아마추어 천문인 동호회와 연계한 천문동아리 캠프도 참여하여 많은 사람과 함께 관측하면서 플레이아데스 성단을 처음 관측하며 촬영해봤고, 제한시간 안에 많은 천체를 찾는 천체관측 대회에도 참가해봤습니다. 또한, 수업시간에 배웠던 천문학 분야를 더 알고 싶어서 ‘모든 사람을 위한 빅뱅 우주론 강의’, ‘코스모스’ 등의 책을 읽으며 지식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점점 우주에 관심을 갖게 됐고, 인간은 우주의 먼지같이 작은 존재인데 우주에 대해 연구할 수 있고 알아낸 것이 있다는 사실에 큰 매력을 느껴서 천문학자가 되기로 결정했고 천문학과에 진학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더 나아가, 학교 천문대의 시상축정을 주제로 교내 논문 발표대회에도 참가하여 이 대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코스모스 시크릿’이라는 책을 읽고 흥미가 생겼던 암흑물질을 연구하는 이론천문학자로 구체적인 진로도 정했습니다. 천문학과에 진학하기 위해 국내 대학 중 천문학과가 있는 학교들의 커리큘럼, 교수진, 활동, 동아리를 알아봤습니다.

세종대학교 물리천문학과는 물리, 이론천문학뿐만 아니라 관측천문학 분야의 교수님까지 계시고 과동아리에 천체관측동아리 'AJA'와 프로그래밍동아리 'ASC'도 있고 ‘별밤축제’를 매년 하여 천문학의 대중화에 힘쓰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세종대 물리천문학과를 가기로 결심하고 제가 세종대학교에 붙을 가능성이 있는 전형을 알아보니 창의인재전형과 학생부교과전형이 있었습니다. 수시 원서 접수를 할 때, 두 전형을 다 지원했지만 고등학교 때의 천체관측 동아리 활동, 교내 논문발표대회 등 다양한 비교과 활동을 했다는 것이 보이면 좀 더

유리할 것 같다는 생각에 창의인재 전형을 중심으로 입시준비를 했습니다. 자기소개서는 학교 선생님들의 지속적인 첨삭을 받고 제가 한 비교과활동을 하게 된 계기, 했던 과정, 하고 얻은 결과, 그 활동을 하고 느낀 점, 그 활동을 하고 새로 알게 된 지식들을 계속 떠올리며 썼습니다. 면접 준비도 학교의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학교에서 했던 모의면접을 다 참여했습니다. 저의 생활기록부와 자기소개서를 보면서 면접 질문이 무엇이 나올지 예상해보고 대답을 준비했습니다. 동영상 촬영을 하면서 방에서 거울을 보며 말해보기도 하고, 부모님과 함께 연습해보기도 하면서 말로도 연습해봤습니다. 면접을 볼 때 자세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바른 자세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모의 면접을 하면서 모르는 질문이 나왔을 때 많이 당황하고 머리가 새하얗게졌기 때문에 모르는 질문을 받았을 때 당황하지 않는 연습도 했습니다. 면접 볼 때, 면접관이 두 명이 계셔서 시선처리를 잘 하는 연습도 했고 필요하다면 손으로 제스처를 취하면서 말하는 연습을 했습니다. 또한, 세종대학교는 제시문이 있는 면접이라고해서 평소에 뉴스와 신문을 봐두었습니다. 면접 당일에는, 면접 대기실에서 생활기록부와 자기소개서, 면접 준비를 했던 자료들을 계속 봤습니다.

나만의
공부 방법

창의인재 전형으로 세종대학교에 가기 위해 내신을 잘 받아야겠다고 생각해서 내신위주로 공부를 했고 수학과 과학을 중심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모든 과목에서 수업을 열심히 들으며 필기를 하고 복습을 했습니다.

수학공부는 과외를 했었습니다. 항상 방학 때 개학하고 배울 부분의 개념을 듣고 개념을 들은 부분을 그날 그날 ‘수학의 정석’과 ‘라이트썬’을 풀었고 개념을 이해하고 외워둬야 하는 공식들을 잘 사용하기 위해 복습을 많이 했습니다. 잘 외워지지 않는 공식들은 자주 보기 위해 포스트잇에 써서 책상에 붙여놓기도 하고 들고 다니면서 틈틈이 보았습니다. 개념진도를 다 다한 후에는 ‘썬’을 풀었고 대략 다음 시험범위일 것 같은 범위까지

‘일품’, ‘블랙라벨’, ‘자이스토리’, 과외에서 주던 프린트를 풀었습니다. 교과서는 적어도 3번은 풀어보았습니다. 항상 모르는 문제를 질문할 때는 그 문제를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에서 제가 모르는 부분만을 찾아서 구체적으로 질문했습니다. 문제를 풀고 나서는 그 문제와 비슷한 유형을 푸는 방법을 외우는 것보다는 그 문제에서 꼭 해내야만 문제를 풀 수 있는 생각 같은 것을 얻어갔습니다. 문제에서 꼭 해내야만 문제를 풀 수 있는 생각에 대한 예를 들어

보면, 내적에서 길이 $\cdot\cos\theta$ 를 따로 볼 때도 있지만 둘이 하나로 볼 수도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내신시험 일주일전부터는 다른 고등학교 내신문제를 주로 풀면서 교과서를 복습했습니다. 내신 시험 전날에는 다른 고등학교 내신문제를 한 두 개 정도 풀었고 틀렸던 문제, 헛갈렸던 문제, 개념을 복습했습니다. 시험을 볼 때에는 모르는 문제, 헛갈리는 문제들을 다 표시하고 확실히 아는 문제들을 다 풀고 마킹을 다 한 후, 표시해둔 문제들을 풀었습니다.

과학 중 지구과학2를 공부했던 방법 :

저는 방학 때 예습을 해주지 않아서 궁금한 것이 생기면 바로바로 찾아가서 이해할 때까지 질문했습니다. 개념은 무조건 배운 날 방과 후에 다시 학교에서 나눠준 부교재와 필기를 읽어보며 복습하고 문제를 풀었습니다. 모르는 것이 생기면 또 질문하러 갔었습니다. 수업시간에 선생님의 추가 설명과 중요하다고 알려주는 문제들도 다 적어뒀습니다. 그리고 주말마다 ‘완자’를 풀면서 이해한 개념을 다시 떠올리고 ‘수능특강’을 풀었습니다. 개념이 헛갈릴 때에는 그때그때 부교재를 찾아보며 공부했습니다. 문제집을 풀면서 틀렸던 문제, 문제에서 헛갈렸던 선지들은 형광펜으로 다 표시를 해두고 왜 틀렸는지, 어떤 것을 몰라서 헛갈렸는지 다 써뒀습니다. 시험 바로 전날에는 형광펜으로 표시를 해둔 문제들과 헛갈리는 개념들을 꼭 복습하고 선생님께부탁하여 하나 더 받아둔 부교재에서 문제들만 다시 꼭 풀어봤었습니다. 시험을 볼 때는 헛갈리는 문제, 모르는 문제를 다 표시하면서 빠르게 풀었습니다. 그리고 확실히 아는 문제를 다 풀고 마킹을 다 해둔 다음, 표시해둔 문제들을 풀었고 시험지를 3번씩은 검토했습니다.

최우수상

나는 이렇게 세종대에 합격했다!

패션디자인학과 김 지 오

정시모집 [수능]
일반학생 전형

안녕하세요, 세종대학교 18학번 패션디자인학과에 입학한 김지오입니다. 저로 말할 것 같으면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전라북도 군산에서 서울로 대학을 합격한 몇 안 되는 학생 중 한명입니다. 어렸을 때는 뭇도 모르고 막연하게 서울에서 살아야지 하는 꿈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그림을 그려야겠다는 것도, 패션디자인을 해야겠다는 계획도 없이 그저 막연하게 생각해온 꿈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제가 서울로 대학을 온답시고 열심히 했던 공부들이 꽤 많은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학교 기숙사에서 글을 쓰고 있는걸 보면요. 많은 분들이 입시는 ‘운’이라고 말씀 하십니다. 그런데 저는 운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합격한 사람은 분명히 합격할 만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요? 부끄럽고 멋쩍기도 하지만 제가 대학교에 입학하기 위해 3년 동안 했던 노력들에 대해 살짝 얘기해볼까 합니다.

저는 중학교 시절부터 꿈을 찾아 헤매고, 방황하고, 대학교에 대해 고민하고 더 멀리는 제 직업까지 고민하며 저의 진로에 대한 많은 걱정으로 힘들었습니다.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건 뭘까? 내가 재밌게 할 수 있는 일들은 무엇일까?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러던 중, 입시미술학원을 운영하시던 저의 친척께서 저에게 미술학원에 다닐 것을 권하셨고 중학생이던 저는 입시생으로 학원을 다니게 되었습니다. 가족들의 예술인 피를 물려받아서 그런지 저는 그림에 꽤 많은 흥미가 생겼고 잘 하고 싶다는 욕심이 생겼습니다. 그림을 그릴 때만큼은 장난 끼 많고 수다스러운 제가 아니고, 진지하고 열심히 하는 제 자신을 발견했을 때 저는 정말 뿌듯했습니다.

제가 패션에 관심을 갖게 된 데는 부모님의 영향이 큰 것 같습니다. 예전에 두 분이 함께 옷가게 장사를 하셨던 적이 있었는데 그것 때문인지 저희 식구들은 모두 패션에 관심이 많습니다. 지금은 아예 다른 직종에 종사하시지만 지금도 부모님과 gucci나 chanel 패션쇼 관람도 하며 패션에 관한 지식을 많이 얻기도

했습니다. 나를 패션에 일가견이 있었던 저는 그림을 그리기 이전에 꿈이 패션 디자인이더군요. 그때의 작은 소망은 아버지와 함께 옷 브랜드를 런칭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가끔 동대문으로 쇼핑을 하러 가면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에게 몇 마디 조언을 구하기도 했습니다. 몇 개월에 한 번씩은 제가 좋아하는 잡지사에서 패션잡지를 구입하여 디자인에 영감을 준 모델을 스크랩도 하는 등의 노력을 했습니다. 옷 수선의 기본 상식, 블라우스의 종류를 설명하는 책이나 고전 서양패션문화, 동양의 전통의상 등, 패션에 관한 서적도 자주 읽으며 디자이너의 꿈을 키웠었지만, 디자인을 전공하기에는 여건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회화를 하게 됐습니다.

대학을 결정해야 하는 때가 왔을 때 학교 홍보 책자를 둘러보며 많은 학교, 학과들을 비교해 보면서 저한테 맞는 학과가 있는지 찾아보던 중, 우연찮게 세종대학교 패션디자인과를 보게 되었습니다. 회화 전공이지만서도 직업선택의 폭이 비교적 좁은 회화과가 살짝 망설여졌던 적도 있었기에 저는 패션 디자인과를 자세히 조사 해보았습니다. 찾아보며, 세종대학교에서는 인체 수채화로 패션디자인학과 실기시험을 보는 것을 알았고 오랫동안 꿈이었던 패션디자인을 공부하기 위해 세종대학 패션디자인과를 목표로 하게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패션디자인학과들은 디자인으로 실기시험을 보기 때문에 저처럼 인체수채화를 전공한 학생들은 패션디자인에 관심이 있어도 지원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는데, 인체색채소묘 시험으로 변경 된 것이 저에게는 큰 행운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또 패션디자인학과로 유명한 몇몇 대학들을 찾아보니, 꽤 높은 순위에 세종대학교가 있어 1 지망을 세종대학교로 목표하여 입시 준비를 했습니다.

저는 세종대학에 입학하기 위해 많은 시간과 많은 노력을 들였습니다. 서울에서 저명한 대학이니 만큼 성적도 높아야 했고 그림도 잘 그려야 했기에 입시 전략을 잘 짜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1-2학년 때는 공부와 실기를 병행했지만 3학년 때는 수능공부에 좀 더 중점을 두었고, 대신 손이 굳지 않게 학원에는 매일 적게 2시간이라도 나가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어렸을 때부터 영어 과목을 제일 좋아했기 때문에 영어 공부는 항상 꾸준히 잘 해왔습니다. 하지만 수능 영어가 절대평가가 되면서 국어와 사회탐구 비중이 높아졌고 대부분의 대학교들이 영어점수에 큰 변별력을 두지 않게 되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수능 국어에 약했던 저는 ebs 수능연계 교재들을 전부 구매하여 이를 악물고 공부했습니다. 그때 풀었던 국어 문제집만 해도 제가 고등학교 1-2학년때 풀었던 것보다 2배는 많을 것 같습니다. 매주 한 번씩 모의 수능으로 국어시험을 보면서 시간체크와 문제지에 익숙해졌고 어떤 유형의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거의 외우다시피 했습니다. 수능 공부는 정말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하다 보니 수능 때 평소 모의고사 성적보다 좋게 나온 것 같고, 실기도 마찬가지로 쉬지 않고 매일매일 준비 하는 게 능력향상에 좋은 밑거름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성공이라는 못을 박으려면 끈질김이라는 망치가 필요하다.” 영국인 신봉에서 뉴햄프셔의 제판소장, 뉴잉글랜드의 부 제독까지 맡은 존 메이슨의 명언입니다. 노력은 결과를 배신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저 역시 부족하지만 하루하루 노력한 결과로 최초합격을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세종대 패디과 실기는 인체색채소묘를 보지만, 저는 옷의 질감과 색감을 잘 표현해내려고 했습니다. 청바지의 질감을 표현하면서도 고유의 색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건식재료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실기 준비하면서 인체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인체 해부학이나 골격의 위치, 근육의 위치를 알아보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저는 무릎 골격의 위치와 손등, 발등 뼈와 손가락, 발가락 마디 정도만 외웠는데도 인체 표현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자세히는 무릎의 앞쪽의 슬개골, 종아리의 경골, 비골입니다. 그리고 회화전공의 입시생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매일매일 모델을 보고 크로키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입시생들이 연습할 때는 보통 사진으로 연습을 하는데 실제 시험장에서는 사진을 보고 그리지는 것처럼 바로 채고 그리기가 어렵습니다. 저도 모델크로키를 제대로 배우기 이전에는 인체비율을 재면서 그림을 그렸는데, 매일 모델을 보고 크로키를 하면서 재지 않고도 바로 형태를 그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크로키 수업의 장점은 시험 때 형태를 잡는 부분에서 시간을 단축 시켜준다는 점, 빨리 그리고 빨리 고치면서 남들보다 정확한 형태를 맞출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의 실기 시험 팁은 시험시작 후 초반 20분에서 인체의 큰 형태와 얼굴, 손, 발 중에 한 부분은 완성만큼 그린 것인데요, 그렇게 하고 쉬는 시간에는 의자를 그리거나, 뒤로 나와서 형태가 어색한 부분을 고치면 시험 때 시간분배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 건식재료는 되도록 안 쓰도록 노력했습니다.

‘색연필로 하면 되겠다’ 하는 생각이 그림을 망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80%를 수채로 완성하고 20%를 색연필을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색연필을 사용하는 부분은 하이라이트 부분, 예를 들면 노동자의 반짝임이나 옷의 반짝임(재질 특성상) 또는 컷대 빛 받는 부분 등이 있으며, 옷 재질이나 무늬 표현에서 색연필을 사용하면 비교적 자세하고 깔끔하게 무늬표현이 가능합니다. 피부에는 손톱, 손 뼈마디를 강조할 때 붉은 색을 이용하여 살짝 강조하는 식으로 사용했습니다.

제가 공부 성적과 실기 성적이 아주 좋은 학생은 아니었지만, 입시를 하면서 느끼게 하나 있습니다.

知之者는 不如好之者오 好之者는 不如樂之者니라
(지지자는 불여호지자오 호지자는 불여락지자니라)

아는 사람은 좋아하는 사람만 못하고, 좋아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만 못하다. 논어에 나온 공자의 말씀인데요, 저는 입시를 하면서 마냥 힘들지만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꿈을 이루기 위해 하는 일이라면 즐기면서 준비하는게 훨씬 좋지 않을까요? 제가 그림 그리는 것을 즐기지 않았다면, 세종대학교에 합격 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알기만 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을 이기지 못합니다. 자꾸만 하기 싫은 마음이 생기 거나, 너무 지쳐서 힘이 들 때 저는 대학 합격하는 장면을 상상하며 긍정적인 마음으로 입시를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열심히 해서 캠퍼스에서 하고 싶은 공부를 마음껏 하는 상상을 하면 없던 힘도 절로 나는 기분 이었습니다. 정말 중요한건 항상 잘 될 거야, 잘 할 수 있을 거야, 하는 긍정적인 마음가짐인 것 같습니다. 긍정은 어떤 순간에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제 주변 사람들께서 저에게 무한한 응원과 지지를 해주지 않으셨더라면 아마 저는 중간에 무너지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힘든 입시를 같이 버텨준 친구들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보내고, 저를 뒤에서 지지해주시고 응원해주신 부모님, 가족들께도 감사드리고, 앞에서 이끌어주시고 북돋아 주신 학원 선생님들과 학교 선생님들, 주변에서 도와주신 분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를 표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우수상

나는 이렇게 세종대에 합격했다!

전자정보통신공학과 김 범 중

정시모집 [수능]
일반학생 전형

고등학교 때 부터 대학을 준비한 남들과 달리 나는 조금 늦게 공부를 시작했다. 때문에 노베이스 상태에서 시작한 수기라 보통 사람들의 수기량은 많이 다를 수 있다.

미련 공태이,
미련한 선택을
하다

고3 때 까지 체대를 준비 하다가, 적성에 맞지 않아 그만두고 부랴부랴 급하게 적성고사를 준비했다. 운 좋게도 경기도 G대학 경제학과에 붙을 수 있었다. 1년을 다니면서 금융상황을 설명하는 온갖 그래프와 수식에 이 미련 공태이는 좌절하게 되고 흥미가 급격히 떨어진 나는 다음해에 다시 수능 준비를 하게 되었다. 어려서부터 운동을 즐겨 해서 그런지, 승부욕이 강하고 누구한테 지는 것을 싫어한다. 그래서일까, 뭔가 내가 수학을 못해서 도망친 것 같은 느낌이 들다보니 수학을 정복하고 싶은 욕망이 강했다. 그렇게 적성으로 운 좋게 대학 들어간 문돌이가 이과수학에 도전장을 내밀어 버렸다. 1년이 결코 짧은 시간은 아니기에 이번 해에 꼭 대학을 들어가겠다는 신념 아래 G대학에 자퇴서를 냈다. 1년의 공부를 이과로 전향한다던지, 휴학을 안 하고 자퇴를 한다던지, 그당시 남들이 보면 미련한 선택 천지였다.

불신(不信)을
근간으로 한
공부법

일반 학생들의 공부계획은 본인의 역량을 믿고 본인이 그 날 할 수 있는 양을 적당한 선에서 과하지 않게 정해놓는 식이다. 기본도 없는 놈인데 나를 믿을 건 덕지가 있었겠는가? 공부하는 시간에는 '나'의 권리를 철저히 제한했다. 스톱워치로 학습시간을 기록하고, 요일별 기상시간, 착석시간을 적었다.

오늘 할 일을 적는 것은 기본이며, 공부에 지치고 앉아있기 힘들 때 마다 나와 대화하듯이 옆에 글귀를 남겼다. 나중에는 공부한 것 하나하나 시간을 기록했다. (사진 1) 왜 이렇게 했냐고? 공부에 무지하고 앉아있는 거에 면적이 되지 않은 나에게는 자유롭게 공부할 권리를 주면 절대 안되기 때문이다. 이 방식은 나에게 하루에 평균 ‘순공 11~13시간’ (밥먹는시간, 멍때리는 시간 제외하고 순수하게 책상에 앉아서 공부만 하는 시간)을 찍게 해주었고, 실제로 노베이스로 시작했지만, 압도적인 공부량 덕분에 성적이 기하급수적으로 오를 수 있었다. 또 핸드폰하는 데에 시간을 뺏길까봐 바로 2G폰으로 바꾸고, 남아빠진 공기계로 인강을 들었다. 의자에 장기간 앉아있으면 답수룩한 머리 때문에 더울까봐 바로 머리를 밀었다.

누군가는 말한다. “공부도 너 자신에게 여유를 주어야 오래 할 수 있는 거야.” 나는 말한다. “복에 겨운 소리 하네. 내 주제에 무슨 여유야.”

독특하고 무식한 나만의 공부법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남들과 똑같이 그날그날 상황에 맞춘 공부를 했다. 운동만 해서, 공부머리가 없었던 내가 어떻게 이학교에 합격할 수 있었을까? 지금부터 노베이스의 독특하고기괴한 공부 노하우를 소개한다!

첫째, 공부하는 과목 순서가 특이했다.

성공한 사람들의 수기를 보면, 수능 시간표에 맞춰 공부하면 몸의 리듬이 자연스레 기억하게 되어 문제를 보다 익숙하게 풀 수 있다고 나와있다. 공부를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아 오래 앉아 집중하는 것조차 힘든 나에게는 사치일뿐. 정말 공부하기 싫고 어려웠던 수학과 과학을 오전 시간과 오후 3시 이전 시간으로 잡았다. 혹시라도 뒤탈타임에 잡으면, 저녁 즈음 슬슬 피곤해진 심신이 공부하기 싫은 내 자신을 귀신같이 합리화 할까 두려워서였다. 그렇게 지옥 같은 3시가 지나면, 그나마 할 만한 국어와 영어가 남아서 남은 시간도 수월하게 공부할 수 있었다.

둘째, 암기가 안 되면 보는 시간을 계속 늘렸다.

공부머리뿐만 아니라, 암기력도 부족한 나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했다. ‘머리가 안 되면 몸이 고생한다’라는 말이 있듯이, 안 외워지면 외워질 때까지 보는 것! 말만 하느냐? 전혀! 실제로 나는 잘 외워지지 않았던 영단어, 고전문법 어휘들, 현대문법 등등을 직접 타자로 쳐서 혼자 빈칸 시험지를 만든 뒤, 아침에 공부

시작할 때, 점심시간, 저녁시간, 자기 전 총 4번을 같은 시험지로 계속 완벽하게 외울 때 까지 보았다.(사진 2) 일일이 타자를 치며 소리 내서 읽다 보는 게 외우는 데 특히 도움이 많이 되었다. 또, 단어장을 따로 쳐서 인쇄해서 화장실을 가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수시로 단어를 외웠다. 암기력이 부족한 대신 내가 외워야 할 지식을 접하고 마주하는 시간을 더 늘리는 방법을 택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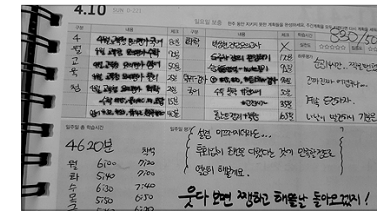


사진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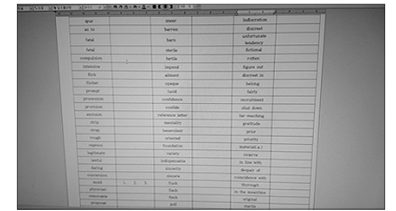


사진 2

셋째, 일요일을 활용하라! 이과Day!

토요일까지 뻥센 하루를 보내다보면 일요일 하루쯤은 쉬고 싶은 유혹에 휩싸일 것이다. 그래서나는 나 자신과의 내기를 했다. ‘수학 과학 킬러문제를 답지 보지 않고 혼자만의 힘으로 5문제 풀기’ 였고, 다 끝나치면 그날 하루 일과는 끝! ‘에게.. 겨우 5문제야?’ 하는데.. 노베이스 상태인 나는 짧게 끝나봐야 한 문제당 한 시간 꼴. 오래 걸리는 것은 두 세 시간 걸리기도 했다. 누군가는 ‘뭐 하러 그렇게 생고생을 하나, 답지를 보면서 공부하면 되지 않느냐’고 비판할 수 있다. 그러나 답지를 봐서 얻은 지식과, 내가 스스로 ‘이 문제에서 써먹을 수 있는 개념이 무엇일까? 이 문장을 읽고 교과서의 어떤 개념을 떠올려야 할까? 이 문항에서는 어떠한 생각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며 깨달은 지식은 깊이에서부터 차이가 난다. 또 문항이 잘 풀리지 않을수록 복잡했던 개념들을 재정비하는 시간을 가지고 문제를 풀었기 때문에, 의외의 복습 효과도 톡톡히 누릴 수 있었다. 내 힘으로 기어이 풀어내고 나면 “시간이 오래 걸린 이유, 출제자의 의도 분석 및 함정의 키워드 찾기, 색다른 풀이” 등등을 노트에 정리하는 시간을 갖는다. (사진 3) 단순히 문제를 푸는 것만이 아니라, 문제를 씹고 즐기기도 하는 것이다. 문항을 풀고 분석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은 비단 수학뿐만이 아니라 물리, 화학도 마찬가지다. 이러한 시간이 계속되다보면 문제를 푸는 것을 넘어서서 이 문제에 쓰인 개념, 키워드들을 캐치하고 다른 문제와 묶어 연결해서 생각해볼게 된다. (사진 4) 점점 문제를 푸는 학생의 관점에서 벗어나 출제자의 관점으로 문제를 바라보게 되는 것이다. 이러다보니 단 한 문제를 풀더라도 그 안에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의 가치

는 무궁무진할 수밖에 없고, 7-8월 즈음 되니 문제를 빨리 풀어서 시간이 남음에도 불구하고 일요일에 공부하는 습관이 들어버리다 보니 다른 공부를 자연스레(?)하게 되는 마법도 경험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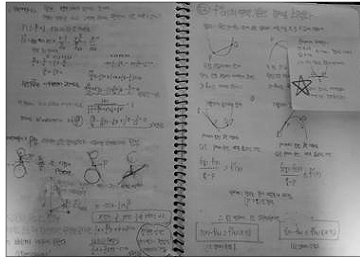


사진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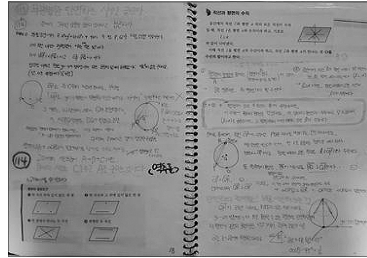


사진 4

넷째, 공부와 시험은 다르다. 모의고사 복기!

책상에서 혼자 문제를 푸는 것과, 시험장에서 문제를 푸는 것은 천차지다. 시험장에서 문제를 푸는 것은 시간의 압박도 많은데다가, 긴장감도 최고조여서 같은난이도의 문제라 할지라도 혼자 문제를 푸는 것보다 더 어렵게 느껴지기 마련! 그래서 나는 굵직굵직한 모의고사를 본 뒤에 “모의고사 복기” 종이를 제작하여, 시험이 끝나자마자 답을 채점하고 시험장에서 느꼈던 것들을 그대로 종이에 써내려가기 시작했다. 국어 비문학과 화학 킬러문제의 화두인 타임어택부터, 각 모의고사별 체감 난이도, 내가 실수한 문제들, 의외의 함정 혹은 시간이 많이 걸렸던 문항들 등등 실제 시험장에서 나를 당황하게 만들었던 요소들을 적었다. 이렇게 하다 보니 과목마다 나에게 맞는 전략을 세울 수 있었다. (ex. 국어는 비문학부터 풀다가 잘 안돼서 문학부터 풀해보고, 수학은 20, 21번을 버리고 시작한다 등등) 그러다 보니 실수가 줄어들고, 시험에서 시간관리를 좀 더 유연하게 할 수 있어서 점점 압박감이 줄어드는 효과도 얻을 수 있었다. (사진5) 확실히 느낀 건 공부를 잘하는 것과 시험을 잘 보는 것은 다르다는 것. 시간의 압박과 긴장감 속에서 내가 아는 것을 빨리빨리 캐치하고 답안을 적는다는 것은 내가 계속해서 연습해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많은 수험생들이 “혼자 문제 풀 때는 잘 나오는데, 시험만 보면 점수가 잘 안나와요.” 이런 고민들 많이 한다. 그런 사람들에게 이 방법을 적극 추천해본다.

정리해보면, 네가지의 방법들이 세부내용은 조금씩 다르더라도, 핵심은 동일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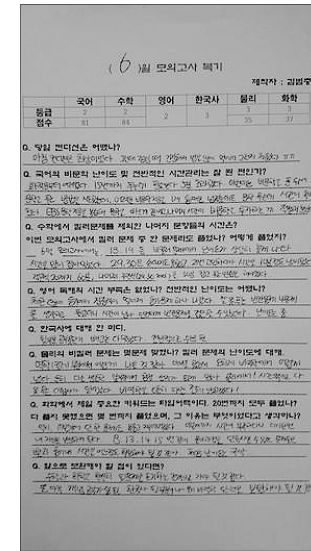


사진 5

“스스로 내자신을 관리하고 통제 하는 것.”

첫 번째는 공부하는 시간을 바꿔서라도 내 자신이 책상에 오래 앉아있도록 통제하는 것. 두 번째는 암기가 잘 안 되는 내 머리를 인지하고 자투리 시간마다 그 시간을 활용하도록 다그치는 것. 세 번째는 남들이 쉬는 일요일에 쉬고 싶은 유혹을 뿌리치고 공부하도록 너 자신을 제어하는 것. 마지막 네 번째는 시험장에서 네가 막연히 잘할 거라는 생각을 버리고, 실제 시험에서 어떻게 행동할지 나만의 메뉴얼을 만드는 것.

1년을 미련하게 살아서 값진 열매를 얻다

기본이 없는 상황에서 시작했다. 미련한 출발이었다. 여유 따위는 내겐 사치였다. 그래서일까, 남들보다 절박했다. 공부 방식조차 미련했다. 요령 없이, 스스로의 통제 속에 하루하루 묵묵하게 공부했다. 그 끝의 열매는 너무나 달았다. 수능장에서 내 미련한 공부방식은 내게 두려움과 걱정을 없애주고, 자신감이라는 무기를 달아줬다. 덕분에 내가 간절히 원하던 세종대 전자정보통신공학과 정시전형에 최종합격할 수 있었다. 정말로 성공에 목말라 있다면, 내가 막연히 할 거라는 생각은 버린 채 매 시간마다, 매 시험마다 자신을 관리하고 제어해야만 한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티다 보면 남들보다, 공부시간이 월등히 많아진 것을 체감 할 수 있을 것이다. 거기에서부터 변화는 시작되고, 점차 쌓이다 보면, 기적은 너에게 현실로 다가올 것이다.

최우수상

채워나가자, 내 눈 앞에 캔버스

호텔관광외식경영부 레 영 지

수시모집 [재외국민]
재외국민과외국인 전형그림을
그리기 전엔
채색 도구를
준비하고
파악하라

인간에게는 태어난 순간부터 마지막 눈을 감는 시간까지,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무언가가 주어집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이런 빈 공간을 채울 수 있는 도구들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유화물감세트가, 어떤 누군가에게는 크레파스가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 상황을 주변 환경이라고도 부릅니다. 어떻게 보면 불공평하다고 할 수도 있지만, 인간은 이렇게 모든 다른 환경에서 성장합니다. 모든 미술가가 같은 채색 도구를 가지고 작품을 시작하지 않듯이, 저 또한 남들과 다른 특별한 상황에서 저의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베트남 국적을 가지고 계신 아버지의 성씨를 물려받아 어디를 가든지 항상 한국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국적을 가지고 있는 부모님의 영향으로 인해 어렸을 때부터 한국과 베트남을 계속 오가며 닮은 듯 아주 다른 두 나라의 문화를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질풍노도의 시기에 학교를 자주 옮겨서 심적으로 굉장히 힘들었던 시간도 많았습니다. 갑작스런 변화한 환경 때문에도, 언어의 벽 때문에도 혼자 시간을 보내는 경우도 허다했습니다. 처음에는 왜 다른 한국 친구들처럼 평범하게 한 곳에 정착하며 공부하지 못할까라고 주변 상황을 원망하기도 했지만 그런 저를 진심으로 따뜻하게 대해준 사람들과 함께 지내면서 조금씩 제 자신의 가치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행을 하지 않으면 다양한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없다는 철학을 가지신 어머니 덕분에 무작정 여러 곳을 돌아다니며 감성적인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호텔을 포함한 여러 가지의 숙박시설에서 지내다보면서 가슴 한 켠에 호텔리어의 꿈을 심었습니다. 결정적으로 제가 이 꿈을 다짐하게 된 계기는 어느 한 리조트의 호텔 서비스 때문입니다. 고등학교 시절, 제가 저의 진로 때문에 방황하고 있을 때 가족끼리 베트남의 한 휴양지로 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 크지 않은 호텔의 규모이었지만 편안하고 편리한 시설과 친절 한 서비스로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수공예로 만든 팔찌를 무료로 나눠준다거나

연필로
밑그림을
그려보자

저녁 시간, 여성 투숙객들에게 꽃을 나눠주는 행위 등 정말 사소하지만 따뜻한 행동들이 모여 저에게 짧지만 강한 울림을 주었습니다. 특히 호텔에서의 마지막 날, 호텔 직원들이 조그만 손편지와 서프라이즈 이벤트는 모든 저희 가족들을 감동시켰습니다. 그 곳에서 저에게 선물했던 소중한 추억은 아직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이 때를 계기로 저도 다른 누군가에게 따뜻한 울림을 주는 호텔리어가 되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저는 어느 정도 확고한 꿈을 가진 채, 유목민 같았던 5년간의 해외생활을 잠깐 멈추고 한국으로 대학을 진학하기 위해 인터넷, 선생님과 상담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물론 제한적인 환경에서 한국 대학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찾는 게 쉬운 일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당시 제가 재학 중이었던 학교에서 많은 한국의 대학들이 입시 설명회를 개최한 덕분에 미처 알지 못했던 한국의 대학입시의 부분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세종대학교는 입시 설명회 때 보지는 못했지만 나중에 인터넷 검색과 선생님과의 상담을 통해 저에게 맞는 학교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호기심을 가지고 이 대학교에 대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조사해보니, 저의 꿈의 학과인 호텔관광경영에 있어서는 국내 1위를 자랑하고 있다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세종대학교 호텔경영학과에 진학하는 것을 저의 목표로 삼았습니다.

굵직한 선 하나를 그려보니 막막하던 입시 준비도 서서히 눈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준비하던 재외국민 전형은 대학교마다 기준이 다르지만, 세종대학교 경우는 영어실력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영어 회화에 있어서는 자신이 있었지만 복잡한 심화영어를 다루기 위해서 영어를 단어, 문법, 독해, 빈칸 채우기, 총 4개의 부분으로 나누어 다시 기초부터 차근차근 다져나갔습니다. 단어는 난이도에 상관없이 하루에 200개씩 꾸준히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손바닥만 한 노트 세 권을 사서 일주일을 주기로 한 권씩 바꿔서 가지고 다니기도 했습니다. 문법 같은 경우는 인터넷 강의로 기본 개념을 정리하며 문제집도 매일 풀어나갔습니다. 처음에는 틀린 문제가 많아 오답노트를 만든다고 시간이 오래 걸렸지만 나중에는 많은 양의 문법 문제를 복습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빈 칸을 채우는 문제는 문장 전체의 의미가 해석될 때까지 선생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단어 문제도 많이 섞여있었기 때문에 독해와 단어 공부가 잘 되어 있지 않을 때는 힘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독해문제에는 타이머를 맞춰놓고 시간 안에 푸는 연습을 많이 했습니다. 무조건 많은 문제를 손에 익을 때까지 푸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듣고 최대한 많은

양의 문제를 빠른 시간 내에 풀어보려 노력했습니다. 남들보다 많은 시간을 영어 공부하는 데에 할애한 편이지만 영어 관련 문제들을 풀 때만큼은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즐겁게 풀어나갔습니다. 책상에만 앉아있는 시간이 괴롭기도 했지만 문제를 깔끔하게 풀었을 때의 쾌감은 이로 다 말할 수 없었습니다.

때로는 번진다.
하지만
덧칠이 작품의
완성도를
높인다

지금 되돌아보면 너무나 소중한 기억이지만, 해외에서 대입을 준비하던 그 당시에는 걱정도 많고 탈도 많았습니다. 한국으로 대학을 들어가긴 하지만 그에 관련된 경험담이나 입시 자료는 턱없이 부족했고, 제가 원하는 책조차 쉽게 구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가끔 내가 너무 동떨어진 꿈을 계획한 건 아닌지 틈만 나면 끝없는 생각의 구렁텅이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저와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친구를 만나고 선생님을 찾아가 몇 시간이고 붙잡고 해결책을 찾으려 애썼습니다. 그리고 생각을 정리하고 싶을 때마다 혼자서 집중할 수 있는 공간에서 무지노트를 펴놓고 제 생각을 글로 옮겨 썼습니다. 또 정말 손에 아무것도 잡히지 않을 때는 도서관에 가서 좋은 글귀를 찾아 수첩에 담아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따뜻한 글들로 수첩과 제 마음을 채워나가다 보면 자신감도 찾고 제 자신에 대한 믿음 또한 찾을 수 있었습니다.

땅에 발을 붙이고 사는 생명체라면 누구라도 우주만한 사연 하나쯤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절망하고, 후회도 하고, 자기 자신을 포함한 주변 사람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허나 마른 물감 위에 덧칠을 하면, 이전에 보지 못했던 더 아름다운 색깔을 만들 수 있듯이, 계속해서 꿈을 꾴보고 계획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화방도 아직 정리되지 않은 오래된 다락방에 불과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다양한 재료를 구해 저의 캔버스 위에 그려보는 중입니다. 제가 저의 꿈에 한 발짝 다가가기 위하여 세종대학교 호텔관광대학에 들어가려 열심히 노력을 했던 것처럼, 이 글을 읽는 여러분도 자신만의 캔버스 위에 여러 색깔을 올려보며 자신의 색깔을 찾아나갔으면 좋겠습니다.

“I dream my painting and I paint my dream.”

- Vincent van Gogh (빈센트 반 고흐)

창조하라, 세종처럼

2019학년도 입학 전형 소개

2019학년도 전형요약 및 주요 사항

모집시기		전형구분		전형방법	수능 최저	모집 인원
수시	기타	재외국민과 외국인		영어필답 100%	×	46
	학생부 교과	학생부우수자		학생부(교과) 100%	×	415
		국방시스템공학 (해군장학생)		1단계 : 학생부(교과) 100% [3배수] 2단계 : 1단계 80% + 해군전형(합/불) 20%	○	28
		항공시스템공학 (공군조종장학생)		1단계 : 학생부(교과) 100% [5배수] 2단계 : 1단계 100% + 공군전형(합/불)	○	14
		농어촌학생 (정원 외)		학생부(교과) 100%	×	92
		학생부 종합	창의인재	1단계 : 서류평가 100% [3배수] 2단계 : 1단계 70% + 면접 30%	×	475
	고른기회		47			
	사회기여 및 배려자		20			
	서해5도학생		3			
	특성화고교졸 재직자		66			
	논술	논술우수자		논술 60% + 학생부(교과) 40%	○	392
	실기 /특기	실기 우수자	무용과	×	21	
			영화예술학과 (연출제작)		10	
			영화예술학과 (연기예술)		10	
		예체능 특기자	체육학과 (승마 제외)	×	16	
			체육학과 (승마)		1	
			무용과		15	
			영화예술학과 (연기예술)		2	
			영화예술학과 (연출제작)		2	
	가군	수능	국방시스템공학 (해군장학생)	○	12	
			항공시스템공학 (공군조종장학생)		6	
		실기	일반학생	×	10	
		나군	수능	일반학생	×	746
				특성화고교 졸업자 (정원 외)		19
				특성화고교 졸업자 (정원 외)		34
	실기		일반학생	×	123	
			학생부 종합		특성화고교졸 재직자	×
계						2,689

※ 「부모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은 국제교류센터 ☎ 02)3408-3973(한국어), 4408(영어), 3353(중국어)로 문의 바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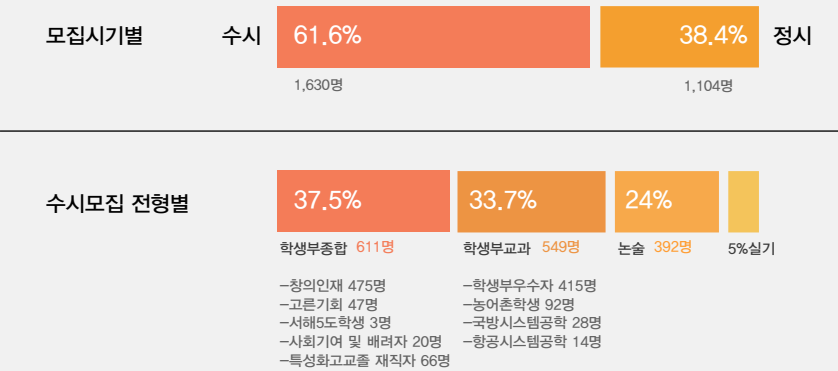
원서접수 및 전형일정, 총원합격발표 및 등록 안내

구분				일시	비고
원서접수				2018. 9.11(화) 09시 ~ 9.14(금) 17시 까지	* 인터넷 접수만 가능 (우편 및 방문접수 불가) (http://ipsi.sejong.ac.kr) * 원서접수 대행업체는 추후 공지
서류제출				2018. 9.11(화) 09시 ~ 9.17(월) 17시 까지	* 발송용 봉투표지(인터넷 접수사이트에서 출력가능)를 대봉투 겹면에 부착하여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본교 입학과로 제출(등기우편은 9.17(월) 소인까지 유효) - 주소 : (05006)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209 세종대학교 입학과(집현관 206호) ※ 방문제출 시간 : 10시 ~ 17시(토/일/공휴일 제외)
자기소개서 수정				2018. 9.17(월) 17시 까지	
실기 고사	실기 우수자	영화예술학과 -연출제작	1단계	2018.10.13(토)	* 고사장 배치표 및 수험생 유의사항은 입학안내 홈페이지(ipsi.sejong.ac.kr)를 통해 공지함 * 예비소집은 실시하지 않음 * 고사 당일 사진이 인쇄된 수험표와 함께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주민센터에서 발급한 사진이 부착된 임시신분증,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여권, 사진이 인쇄된 학생증(졸업예정자에 한함) 중 택1 을 반드시 지참해야 함 * 실기 · 면접 · 논술고사 장소 안내 - 9.28(금) : 실기고사 장소 안내(실기우수자,예체능특기자) 면접고사 장소 안내(예체능특기자) - 11.15(목) : 논술고사 장소 안내(논술우수자) ※ 입학안내 홈페이지를 통해 17시 이후 공지 예정 * 1단계 합격자 발표 및 2단계 일정 · 장소 안내 - 10.10(수) : 1단계 합격자(국방시스템공학과) 1단계 합격자(항공시스템공학과) - 10.24(수) : 1단계 합격자(실기우수자(영화예술학과)) - 11. 8(목) : 1단계 합격자(고른기회) 1단계 합격자(서해5도학생) 1단계 합격자(사회기여 및 배려자) 1단계 합격자(특성화고교졸 재직자) - 11.22(목) : 1단계 합격자(창의인재) ※ 입학안내 홈페이지를 통해 17시 이후 공지 예정 ※ 원서접수 마감 후 지원자 수에 따라 부득이 고사일시가 변경될 경우 본교 입학안내 홈페이지에 일정 변경사항을 공지할 예정임
			2단계	2018.10.30(화)	
		영화예술학과 -연기예술	1단계	2018.10.12(금) ~	
			2단계	2018.10.31(수)	
예체능 특기자	무용과		2018.10.19(금) ~		
	체육학과		2018.10.16(화)		
	무용과		2018.10.19(금) ~		
	영화예술학과-연기예술		2018.10.31(수)		
예체능 특기자	영화예술학과-연출제작		2018.10.27(토)		
면접 고사	창의인재	인문계열		2018.12.2(일)	
		자연 계열	자연과학대학 생명과학대학 전자정보공학대학 공과대학	2018.12.2(일)	
			소프트웨어융합대학	2018.12.1(토)	
			인문계열		
		고른기회 서해5도 사회기여 및 배려자	자연계열		
	특성화고교졸 재직자		2018.11.17(토)		
	논술 고사	논술 우수자	인문계열		
			자연 계열	자연과학대학 생명과학대학 소프트웨어융합대학	2018.11.25(일) 10시 ~ 12시
				공과대학 전자정보공학대학	2018.11.25(일) 15시 ~ 17시
				최초합격자 발표	
기타 수시모집 전형		2018.12.14(금) 17시 이후			
최초합격자 등록예치금 납부				2018.12.17(월) 09시 ~ 12.19(수) 16시	* 합격자 본인의 우리은행 가상계좌로 입금 * 등록기간 내 등록예치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등록포기로 간주하여 합격을 취소함
추가합격자 발표		1차		2018.12.19(수) 20시 이후	* 본교 입학안내 홈페이지에서 발표 ※ 전화로 개별 통보하지 않음 ※ 추가합격자가 지정된 기간 내 등록예치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등록포기로 간주하여 합격을 취소함
		2차		2018.12.21(금) 20시 이후	
		3차		2018.12.24(월) 14시 이후	
	최종	실기우수자, 예체능특기자	전화 개별 통보	2018.12.26(수) 21시 까지	* 연락 가능하도록 전화대기 요망 ※ 추가합격자가 지정된 기간 내 등록예치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등록포기로 간주하여 합격을 취소함 * 본교 입학안내 홈페이지에서 발표 ※ 전화로 개별 통보하지 않음 ※ 추가합격자가 지정된 기간 내 등록예치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등록포기로 간주하여 합격을 취소함
			홈페이지 발표	2018.12.26(수) 21시 예정	
		그 외 전형			
잔여등록금 납부 (정시모집 등록기간)				2019. 1.30(수) 09시 ~ 2. 1(금) 16시	* 합격자 본인의 우리은행 가상계좌로 입금 ※ 수시 등록예치금 납부자는 잔여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하지 않을 경우 등록포기로 간주하여 합격을 취소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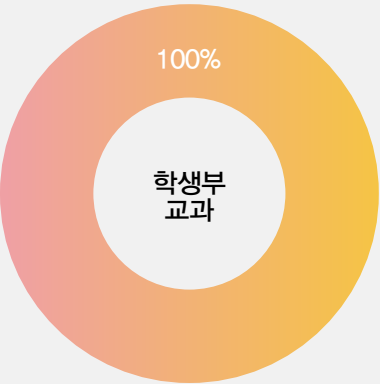
※ 국방시스템공학과 및 항공시스템공학과 2단계 전형일정은 추후 입학안내 홈페이지에 공지함

2019학년도 수시모집 주요전형 안내

2019학년도 모집인원



학생부우수자 전형



수능 최저학력기준 : 없음

2014년 2월 이후(졸업 후 5년)
국내 정규고등학교 졸업(예정)자
4개 학기 이상 학생부 성적

※ 지원불가학교 : 특성화고등학교, 마이스터고, 예술고, 체육고, 방송통신고, 대안학교, 고등학교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일반 고등학교의 대안교육위탁 및 직업교육위탁

학생부교과 성적 산출

학생부 반영교과

계열	반영교과	점수산출 활용지표	학년별 반영비율	요소별 반영비율
인문계열	국어, 영어, 수학, 사회	석차등급 및 이수단위	없음 (전학년 평균)	교과성적 100%
자연계열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예체능계열	국어, 영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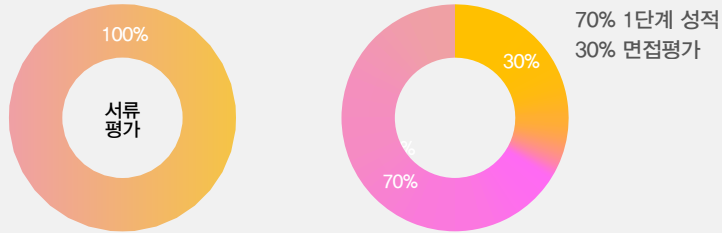
* 지원한 계열에 해당하는 반영교과 중 교과별 한 과목도 없는 경우 지원 불가
* 교과 반영 학기 : 수시(3학년 1학기), 정시(3학년 2학기)
* 영어교과는 영어, 외국어(영어), 교과만 인정

점수산출 방법

* 석차등급평균 : [(반영교과별 석차등급 x 이수단위)의 합] ÷ (반영교과 이수단위의 합)

* 점수산출방법 : 학생부 반영총점 - [
$$\frac{(\text{학생부 반영총점} \times \text{가중치}) \times (\text{석차등급 평균} + 1) \times (\text{석차등급 평균} - 1)}{9 \text{ (등급)}}$$
]

학생부종합 전형 전형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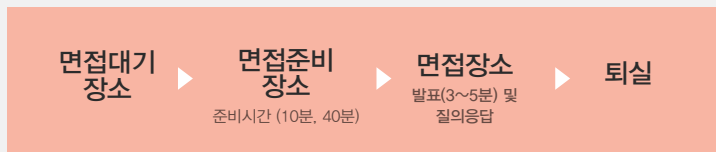


수능 최저학력기준 :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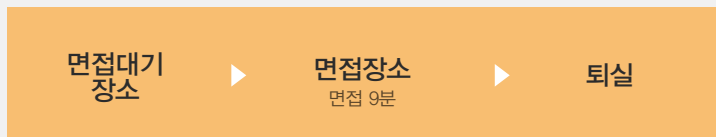
서류평가	학교생활기록부(교과+비교과), 자기소개서 등 제출서류에 기반한 정성평가
면접평가	심층면접 - 창의인재 : 전공적합성 관련발표자료 작성 (40분 or 10분) 일반면접 - 고른기회, 서해5도학생, 사회기여 및 배려자, 특성화고교졸 재직자

학생부종합 전형 면접방법

심층 면접 | 창의인재 * 면접준비 : 전공적합성 발표자료 작성
(소프트웨어융합대학 40분, 그 외 모집단위 10분) 주제는당일공개



일반 면접 | 고른기회 등



FAQ | 학생부종합 자주하는 질문

학생부종합 전형은 어떤 학생이 지원하면 좋을까요?

1. 분명한 진로목표를 가지고 자기주도적으로 관심분야에 열정을 쏟은 학생
2. 학생부 교과, 교내활동을 통해 지원학과에 대한 관심을 보여줄 수 있는 학생
3.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공동체 의식을 갖고 몸소 실천하는 학생
4. 도전정신, 적극성이 뛰어나며 솔선수범하는 학생 등

학생부종합 전형 준비를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1. 자신의 관심, 적성과 소질, 진로 등을 진지하게 고민, 탐색해 볼 것
2. 학교 교육과정에 충실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
3. 자신이 참여한 활동에 대해 꾸준히 성찰, 이를 바탕으로 자기소개서 작성해 볼 것

학생부종합 전형 지원을 위해서는 다양하고 많은 활동이 필요한가요?

1. 단순히 많은 활동보다 각종 활동을 통해 내적 성장을 일궈낸 학생 선호
2. 활동의 질과 내용이 중요함
3. 방향성 없고 목적의식도 없이 단순 참여에 그친다면 좋은 점수 받기 어려움
4. 활동경험과 호기심을 발판으로 배우고 느낀 점을 잘 정리하고 활동의 과정을 통하여 발전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중요

자기소개서에 다양한 활동 내용을 넣는 것이 좋은가요? 일관된 활동 내용을 넣는 것이 좋은가요?

무조건 다양한 활동에 대해 열거하는 것은 좋지 않음
다양한 활동 중에 자신의 관심 있는 활동에 초점을 맞춰 일관성 있게 연결하는 것이 좋음

- 예) '나는 A,B 활동도 했으며, Z활동까지 매우 다양한 활동을 하였다'
- > '나는 A활동으로부터 Z활동까지 다양한 활동을 경험했는데 이 중 D활동을 통해 나의 진로를 구체적으로 설정할 수 있었다.'
 - > 'D활동을 통해 E라는 새로운 분야를 알게 되었고 더 나아가 OO학과에 입학해 F 분야를 개척, 발전시켜 보고 싶다'

팀별 활동, 공동수상 실적, 학교행사 등 단체 활동은 어떻게 평가되나요?

1. 단체 활동은 학교생활충실도나 공동체의식이나 리더십, 인성 등을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근거자료
2. 본인의 적극적으로 주도적인 활동노력, 의미 있는 성장, 소속된 단체를 위한 남다른 헌신과 열등 등을 구체적으로 나타내야 함
3. 왜 참여하게 되었는지(동기), 어떻게 참여했는지(과정), 무엇을 배우고 느꼈는지(결과) 등 질적인 측면을 강조

봉사활동, 교내 대회 수상실적이 많을수록 좋은 건가요?

1. 봉사활동 시간보다 봉사활동을 통해 무엇을 배우고 느꼈는지, 어떤 면에서 성장했는지가 더욱 중요
2. 수상실적의 양보다 도전정신, 상을 받기까지의 과정 등을 질적으로 평가
3. 대회의 의미, 준비 과정, 이를 통해 어떠한 성장을 이루었는지가 중요

무단지각, 무단결석이 있으면 평가에 불리한가요?

1. 학교생활충실도를 평가하는 가장 기본적인 항목
2. 3년간의 출결사항과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를 연결지어 평가
3. 무단지각, 무단결석이 반복된다면 평가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

진로희망에 일관성이 없으면 평가에 불리한가요?

1. 청소년 시기에 진로희망사항은 당연히 변화가능
2. 변화하게 된 과정이나 사유를 설득력 있게 제시
3. 창의적 체험활동이나 독서활동 등에 적극적 진로탐색을 통한 희망진로의 변화가 보일 경우 긍정적으로 평가

서류평가 시 지원학과와 관련된 활동만 평가에 반영되나요?

1. 지원학과와 관련된 활동 뿐 아니라, 학교생활 전반이 평가대상이 됨
2. 지원학과와 관련된 활동을 꾸준히 한 경우 긍정적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지만, 단편적으로 지원 분야와 관련된 활동만을 평가하지는 않음

서류평가에서 전공적합성은 어떻게 평가하나요?

1. 전공에 대한 관심과 열정, 전공 이해도 및 적성, 전공 관련 진로 탐색 활동 경험, 학업 및 진로계획의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2. 지원학과 관련된 동일한 활동(예: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 방송반, 화학과 – 화학 동아리 등)을 필수적으로 해야 한다는 인식은 잘못된 것!
3. 각종 교내활동을 통한 학업적 능력, 전공계열의 탐색 과정 등을 총체적으로 검토

심층면접에서 전공적합성은 어떻게 평가하나요?

1. 전공적합성은 대학입학 후 전공분야 학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기초역량과 관련된 것
2. 전공 관련 교과목의 이수정도, 동아리 또는 진로 활동을 통해 전공에 대한 탐색과 준비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3. 고교에서의 충실한 학습과정만으로도 높게 평가될 수 있음
4. 전공 관련 교과목 혹은 관심영역에 대한 본인의 노력과정을 진정성 있게 답변

논술우수자 전형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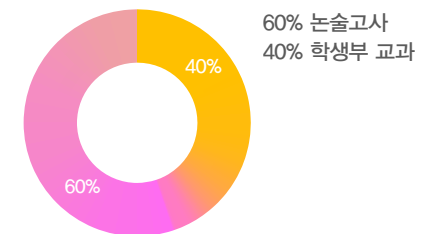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검정고시 출신자/ 외국 고등학교 출신자

[수능 최저학력기준]

*인문: 국어, 영어, 수학(나),
사탐(2과목 평균) 중 영어를 포함한
3개 합 6 이내

*자연: 국어, 영어, 수학(가),
과탐(2과목 평균) 중 영어를 포함한
3개 합 7 이내

※ 공통사항 : 한국사 필수 응시



2019학년도 정시모집 모집인원

계열	단과대학	모집단위	입학정원 (정원내)	가 군			나 군			
				일반학생	국방시스템 공학 (정원외)	항공시스템 공학 (정원외)	일반학생	농어촌학생 (정원외)	특성화고교 졸업자 (정원외)	특성화고교졸 재직자 (정원외)
인문 계열	인문과학	국어국문학과	27				10	이월인원		
		국제학부	108				30	이월인원		
		역사학과	18				6	이월인원		
		교육학과	27				10	이월인원		
	사회과학	경제통상학과	44				20	이월인원		
		행정학과	33				12	이월인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40				15	이월인원		
	경영	경영학부	126				36	이월인원	3	
		호텔관광외식경영학부	122				52	이월인원	3	
	호텔관광	호텔외식관광 프랜차이즈경영학과	1							32
		글로벌조리학과	1							32
자연 계열	자연과학	법학부	36				10	이월인원		
		수학통계학부	49				18	이월인원		
		물리천문학과	59				22	이월인원		
		화학과	45				17	이월인원		
	생명과학	생명시스템학부	148				61	이월인원	4	
	전자정보 공학	전자정보통신공학과	210				91	이월인원	5	
	소프트 웨어 융합	컴퓨터공학과	130				44	이월인원	3	
		정보보호학과	30				8	이월인원	1	
		소프트웨어학과	60				18	이월인원	2	
		데이터사이언스학과	40				9			
		지능기전공학부	142				48			
		창의소프트학부								
		디자인이노베이션전공	50				5			
		인화애니메이션전공	50				5			
	공과	건축공학부	102				40	이월인원	3	
		건설환경공학과	60				26	이월인원	2	
		환경에너지공간융합학과	48				19	이월인원	1	
		에너지자원공학과	45				18	이월인원	1	
		기계항공우주공학부	130				55	이월인원	3	
		나노신소재공학과	90				37	이월인원	2	
		원자력공학과	20				4	이월인원	1	
		국방시스템공학과	계약학과		12					
예체 능 계열	예체능	항공시스템공학과	계약학과			6				
		회화과	36				36			
		패션디자인학과	36				36			
		음악과	40				40			
		체육학과	36				19			
		무용과	36	이월인원						
		영화예술학과 (연출제작)	45	10						
		영화예술학과 (연기예술)								
		계	2,320	10	12	6	888	0	34	64

- ※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은 학칙에 의거 변경될 수 있으므로 모집시기별 모집요강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 ※ 국방시스템공학과(해군장학생), 항공시스템공학과(공군조종장학생)는 협약에 의해 운영되는 장교 채용조건형 계약학과임
- ※ 농어촌학생 특별전형 및 무용과의 경우 수시 미충원 인원 발생 시 모집

2019학년도 정시모집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1. 모집단위별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모집군	전형구분	모집단위	전형방법	학생부(교과)	수능성적	실기고사	전형총점
가군	일반학생	무용과 영화예술학과 (연출제작)	일괄합산	10%	10%	80%	1,000점
				10%	30%	60%	
	항공시스템공학 (공군조종장학생)	국방시스템공학과	1단계 (3배수)	수능 100%			800점
		항공시스템공학과	2단계	1단계성적 80% + 해군전형 20%(합/불)			1,000점
			1단계 (5배수)	수능 100%			1,000점
나군	일반학생 농어촌학생 특성화고교졸업자	인문계열 자연계열	일괄합산	수능 100%			1,000점
				1단계 성적 100% + 공군전형(합/불)			1,000점
	특성화고교졸 재직자	호텔외식관광 프랜차이즈경영학과 글로벌조리학과	1단계 (3배수)	서류평가 100%			700점
			2단계	1단계 성적 70% + 면접 30%			1,000점
	일반학생	회화과 패션디자인학과	일괄합산	10%	40%	50%	1,000점
				10%	10%	80%	
				20%	50%	30%	
				10%	30%	60%	

※ 농어촌학생 특별전형 및 무용과의 경우 수시 미충원 인원 발생 시 모집

2.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역별 반영비율

전형구분	모집단위	계열	표준점수			등급	백분위		반영총점
			국어	수학			영어	탐구 (2과목)	
				가	나		사회	과학	
일반학생 농어촌학생 특성화고교졸업자	전 모집단위	인문	30%	—	30%	20%	20%	—	1,000점
	전 모집단위 (창의소프트학부 제외)	자연	15%	40%	—	20%	—	25%	
	창의소프트학부	자연	35%	35%		20%	10%		
항공시스템공학	항공시스템공학과	자연	15%	40%		20%	25%		1,000점
국방시스템공학	국방시스템공학과	자연	15%	40%		20%	25%		800점
일반학생	회화과 패션디자인학과	예체능	70%	—		30%	—		400점
	체육학과		70%	—		30%	—		500점
	음악과, 무용과		70%	—		30%	—		100점
	영화예술학과		70%	—		30%	—		300점

※ 영어 등급별 점수표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8등급	9등급
영어점수	100	95	85	70	50	30	15	5	0

- ※ 국방시스템공학과/항공시스템공학과 : 수학(가)형 응시자에게 수학 반영점수의 10% 가산점 부여하며, 직업탐구는 인정하지 않음
- ※ 창의소프트학부 : 수학(가)형 응시자에게 수학 반영점수의 5% 가산점 부여하며, 직업탐구는 인정하지 않음
- ※ 인문/자연계열(계약학과 제외) : 한국사 등급별 가산점 부여 [1 ~ 3등급 : 10점, 4등급부터 1등급당 - 0.2점씩 가산]
- ※ 특성화고교 졸업자 특별전형의 경우 직업탐구 응시자는 탐구영역에 직업탐구를 반영할 수 있음

2019학년도 정시모집 학교생활기록부 반영방법

1. 반영영역 및 학년별 반영비율

고교 졸업년도	학년별 반영비율	교과영역	비 고
2017년 2월 ~ 2019년 2월 졸업(예정)자	전 학년 평균	100%	※ 반영교과에 해당하는 전 과목을 3학년 2학기까지 반영함 ※ 영어교과는 영어, 외국어(영어) 교과만 인정

2. 반영총점, 반영교과 및 활용지표

계열구분	모집단위	반영총점	반영교과	활용지표
예체능	체육학과	200	국어, 영어	석차등급 및 이수단위
	기타 학과	100		

3. 교과성적 반영방법

[전 학년] 석차등급 평균	[(반영교과별 석차등급×이수단위)의 합] ÷ (반영교과 이수단위의 합)				
반영점수 산출방법	학생부 반영총점 - [$\frac{(\text{학생부 반영총점} \times \text{가중치}) \times (\text{석차등급 평균} + 1) \times (\text{석차등급 평균} - 1)}{9 (\text{등급})}$]				
석차등급 평균에 의한 가중치	석차등급 평균	1등급 이상 3등급 미만	3등급 이상 6등급 미만	6등급 이상 8등급 미만	8등급 이상
	가중치	0.02	0.05	0.08	0.1125

4. 비교내신 반영방법[예체능계열]

구 분		반영방법
2016년 2월(2월 졸업 포함) 이전 졸업자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영역별 반영비율에 의해 산출된 점수를 학생부 반영비율로 환산하여 사용함
교과교육소년원의 고등학교과정 이수자		
검정고시 출신자		
외국 고등학교 출신자		
일반계고교 직업과정 위탁생		
공업계 2+1 체제 이수자		
기타	학교생활기록부 석차등급 산출 불가자	